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2024.04.15-21

No. 750



K-공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
2028년 스포츠산업 100조 시대로!
6·25참전용사 찾아 사진에 담은 라미 작가
K-컬처 업고 K-마이스 재도약



청각장애 아이돌 빛나는 도전

2024 장애인의 날 데뷔하는 '빅오션'



★★★★★
참 잘했어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민추천 접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봉사하고 있는 공무원을 추천해 주세요!



추천기간 | 제10회는 '24. 5. 14.(화) 까지

추천대상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추천분야

참 잘했어요!

상식과
공정

참 잘했어요!

역동적
경제

참 잘했어요!

따뜻한
동행

참 잘했어요!

자율과
창의

추천방법

- 오프라인 기관별 상훈 담당부서 우편 송부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인사혁신처,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등 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접수
- ※ 단, 인사혁신처(자랑스러운 공무원이야기)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추천은 상시 접수 가능



인사혁신처
국민 추천서
접수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야기(mpm.go.kr/best_officer) → 국민추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4층 적극행정과 (우)30128

이메일

euijin21@korea.kr

문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309/8299)

“여행 많이 하시겠어요”

“여행 많이 하시겠어요.”

내 직업을 ‘파일럿’이라고 소개하면 자주 듣는 말이다. 항공업계에서 여행은 어떻게 보면 부속물과 같다. 특히 장거리 비행의 경우 항공 승무원들은 목적지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레이오버(layover)’를 한다. 그래서 승무원들의 여권 페이지는 금세 출입국 도장으로 꽉 찬다. 종종 “많은 나라를 가니 견문이 넓어지겠다”라는 말을 듣지만 사실 민망한 일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여행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다. 그곳의 문화를 체험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인데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그런 여행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 간다고 하지만 그 나라가 그 나라 같기 때문이다. 보통 목적지에 착륙하면 공항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전용 리무진 버스를 타고 승무원들이 묵는 호텔로 다 같이 이동한다. 체력 좋은 승무원들은 호텔 밖에 나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호텔에서 푹 쉰다. 자고 일어나면 주어진 자유시간은 반나절 남짓이다. 무엇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얼마 뒤 다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공항에 내려 돌아오는 비행을 소화한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가도 4성급 이상 호텔들은 서비스와 시설이 부자 나라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립된 탓이다. 좋게 말하면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고 나쁘게 말하면 서비스의 획일화다. 그러니 어느 나라에 가든 비슷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어디서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무료 와이파이로 인스타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음식이나 특산물도 예전에는 특정한 지역에 가야만 즐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나 별 차이가 없다. 에그타르트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포르투갈의 맛집에 간 적이 있는데 솔직히 한국 것이 더 맛있었다. 그러니 나라를 이동해도 여행한다는 느낌보다는 ‘일상’이라는 캡슐이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 같다. 체류하는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언젠가 세계 최빈국 중 한 곳에서 레이오버를 한 적이 있다. 그곳에도 글로벌 호텔 브랜드가 있어서 서울의 고급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쾌적하고 편안한 호텔 덕에 기분은 좋았지만 그것이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호텔과 공항을 리무진 버스로 왕복하는 동안 호텔 밖 세계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씻지 않은 것 같았고 아이들은 구걸을 하고 있었다. 도로는 움푹 파였고 길거리에는 쇠통이 가득했다.

러시아 출신의 나이 지긋한 기장이 한 말에 따르면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모든 나라의 호텔들이 좋지는 않았다고 한다. 외국인 전용 최고급 호텔로 선정된 곳마저 녹물이 나오고 미니바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가 있었다니 말이다. 세상은 좋아졌고 덕분에 몸은 편해졌지만 종종 마음은 불편하다. 양극화의 현실을 목격할 때마다 괜히 죄를 짓는 기분도 든다. 물론 고생을 해야만 진정한 여행은 아니지만 럭셔리 호텔 안에만 머물다 돌아온다면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좋은 호텔에서 잘래? 아니면 현지 경험을 해볼래?”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전자를 고를 테니 여행이 아닌 ‘단순 이동’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



원요한

프로N잡러 중동 파일럿.
국내 경제지 기자 출신으로
지금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민항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가, 리포터,
콘텐츠PD 등으로 활동 중이다.

1500년 사찰 운문사의 봄은 진달래와 함께

앞보다 꽃을 먼저 보여주는 진달래는 한반도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 선조들의 활동 무대였던 땅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1995년 4월 필자가 북한으로 취재를 갔을 때 가장 먼저 반긴 꽃도 진달래꽃이었다.

“진달래꽃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 문화의 핵심이다. 천지화(天指花)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우리의 고유 꽃이다.”

수십 년간 진달래와 철쭉 등 진달래속 식물을 연구해 온 정우규 식물분류학 박사의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진달래꽃으로 '진달래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진달래꽃을 청주에 담가 빚는 술인 '두견주'도 있다.

진달래의 영어 이름은 한국산 진달래속(Korean rhododendron), 코리안 로즈베이(Korean rosebay)다. 미국에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진달래 묘목은 '코넬 핑크(Cornell Pink)'라 불린다. 코넬 핑크 앞에는 '가장 아름다운 핑크색의 꽃'이라는 설명이 종종 붙는다.

경북 청도군 호거산에 있는 운문사는 560년(신라 진흥왕 21년)에 창건됐다. 운문사를 통해서 흐르는 계곡인 약야계(若耶溪) 위로 진달래꽃 가지가 수줍게 매달려 있다. **K**



강형원

1963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했다. UCLA를 졸업한 뒤 LA타임스, AP통신, 백악관 사진부, 로이터통신 등에서 33년간 사진기자로 근무했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풀리처상을 2회 수상했다.







2024.04.15-21

No.750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4년 4월 15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프린피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표지사진 ©영상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1
더 공감
원요환
“여행 많이 하시겠어요”

02
강형원 기자의 문화유산 찾기
진달래

06 커버스토리 청각장애 아이돌 빛나는 도전

2024 장애인의 날 데뷔하는 ‘빅오션’
권리보장은 더하고 돌봄 부담은 덜고
장애인 정책 6조 원 투입

정책 돋보기

14
지금 용산은
“AI 기술 G3 도약 위해
2027년까지
AI·AI반도체에
9조 4000억 투자”

18
알쓸정책
이제 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하세요 외

22
정책 돋보기
농번기 인력 문제 해결! 역대 최대 인력 투입
선거 현수막으로 멋진 재활용품 만들기
도전하세요!

24
돈 되는 정책
청년 문화예술패스





34

25

이 주의 키워드
붉은 누룩

26

포커스
2028년 스포츠산업
100조 시대로!

28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
작년 국토 면적 '여의도 두 배'만큼 늘어
2024 지적통계

30

이슈
필수의료진 보상 공정하게!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

34

K-피플
6·25참전용사 찾아 세계로
평택 미군기지서 전시하는 라미 현 작가



46

38

김형자의 친절한 과학정책
나트륨 이온 배터리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를 꿈꾸다

40

어피티가 본 MZ 생각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43

K파워 K마이스
2028년 국제회의 개최 세계 1위 목표!
K-컬처 업고 K-마이스 재도약

46

문화현장
‘고종의 서재’로 봄나들이 가볼까

49

데이즈 가족의 환경툰
저탄소 농업기술



56

50

작은 영웅들
‘몸짱 경찰 달력’ 최연장자 모델
박근직 경감

54

옛 그림이 전하는 지혜
불명? 물명? ‘돌명’하는 선비들

56

여행이 있는 주말 ‘로컬100’ 따라가기
경기 양평 용문사 & 은행나무

60

신기율의 마음 상담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들꽃처럼
제 인생의 봄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요”

62

함께 즐기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윤 포세
한국 독자와 만나다 외
V-리그 최우수선수(MVP) 김연경

64

독자 공감

장애인의 날 데뷔하는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

진동으로 박자 맞추고 근육의 힘으로 음정 맞추고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우리가 보여줄게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세상에 나와줘서 고맙다는
댓글을 봤어요. 힘이 나면서 한편으론 대중이 저희를
어떻게 맞아줄지 걱정도 돼요.”

세 명의 청각장애인 멤버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빅
오션(Big Ocean)’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데뷔한다.
청능사(환자의 청력검사를 해주는 전문가, 이찬연), 유
튜브 크리에이터(박현진), 운동선수(김지석)로 활동하
던 세 명이 모여 합을 맞춘 지 1년 반. 빠른 비트에 맞
춰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칼군무’도 거뜰히 소
화할 수 있게 됐다.

멤버들은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통해서만 소리를 들
을 수 있다. 청각 수준과 반응 속도도 제각각이다. 다
양한 음정을 파악해 정확히 노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노래는 물론이고 음악에 맞춰 똑같은 안무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습 과정도 음악을 만드는 과정도
비장애인과는 다르다. 세 명의 멤버는 먼저 각자의 목

소리를 녹음한 뒤 고음역 등 일부 부족한 부분에는 보
이스 컨버전 기술을 입힌다. 멤버들의 목소리를 학습
(딥러닝)시킨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 형식이다. 안
무는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진동 메트로
놈을 활용해 박자를 맞춘다. 실제 무대공연 때는 소음
이 섞이는 상황에 대비해 관객 휴대전화의 도움을 받아
빛 메트로놈을 접목할 계획이다.

멤버 중 막내인 김지석 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들보다 몇 배로 연습하며 몸으로 카운트를 세는 수
밖에 없었다. 내가 듣는 것과 형들이 듣는 것이 달라 난
감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선천적 청각장애
를 안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스키단 선수였던 고교 시
절, 장애인 예술 공연을 보러갔다가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 만형인 이찬연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고열 증상을 겪은 뒤 후천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았
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청능사로 일하던 중 청각장
애인 배우 김리후 씨를 만난 이후 가수 오디션에 도전



(왼쪽부터) 이찬연 씨, 박현진 씨, 김지석 씨 등 세 명의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그룹 '빅오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데뷔한다. 사진 C영상미디어

했다. 또 다른 멤버인 박현진 씨 역시 세 살 때 고열로 인한 후천적 청각장애를 얻었다. 빅오션 멤버가 되기 전까지 청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다.

‘빅오션’이라는 그룹 이름에는 ‘바다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 ‘세상을 크게 오(O)! 놀라게 한다’, ‘오션(Ocean)처럼 전 대륙에 도달해 활동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룹 H.O.T.의 리메이크 곡인 ‘빛’을 데뷔곡으로 내세운 것도 빛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멀리 뻗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2024년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가는 길’이다. 슬로건처럼 ‘함께, 평등한 세상’을 위해 먼저 용기를 내고 첫걸음을 내딛은 이들의 도전에 관심이 쏠아지고 있다.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은 최초인데요. 빅오션의 등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합을 맞춰 춤출 수 있을까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편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편견을 저희가 부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찬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무는 수어 형식인가요?

찬연 춤을 추는 구간과 수어를 하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 더 추가된 셈입니다. 보는 분들이 수어를 자연스럽게 춤으로 여겨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이는 언어’인 수어는 표정도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요.

현진 수어는 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춤을 추다보면 숨이 차서 표정 조절을 못할 때가 생겨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사진 ©영광미디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이찬연

노래를 할 때 자신이 내는 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진 튜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정을 눈으로 확인해요. 예를 들어 제가 ‘도’ 음정을 냈을 때 ‘c3’가 뜨면 음정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제가 느끼는 근육의 힘을 기억해둬요. ‘내가 이 정도 힘과 크기로 소리를 냈을 때 이 소리가 나오는구나’ 하고요. 연습 초기에 제가 음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리만 커지는 거였더라고요(웃음).

세 사람이 합을 맞추는 과정은 어땠나요?

지식 저는 보청기를 끼고 있고 형들은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어요. 들리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차이가 뭔가요?

현진 보청기는 청력 약화상태를 보조(소리 증폭)하는 기능을 한다면 인공와우는 보청기로도 들리지 않을 만큼 청력을 상실했을 때 착용하게 돼요. 인공와우는 말 그대로 소리가 기계처럼 인공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각자 인식하는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보청기나 인공와우가 없을 땐 소리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나요?

찬연 인공와우 배터리가 방전되면 제 주변은 고요해져요. 아무도 없는 깊은 바닷속에 잠긴 기분이에요.

지식 보청기를 빼면 큰 진동은 느껴지는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인터뷰는 통역 없이도 가능했다. 의사소통도 비장애

사진 ©영광미디어



“청각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데 용기를 내고 비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하는 데 용기를 낸다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박현진

인과 다르지 않게 이어졌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세 명 모두 말하는 상대방의 입 모양을 자세히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다. 이들 각자 청각을 잃은 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대면 인터뷰가 가능할 거라곤 예상 못했어요.

지식 이만큼 말을 할 수 있게 된 지 얼마 안됐어요. 스스로 소통을 차단하며 살았거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다보니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가수라는 꿈을 꾸면서 자신감을 갖고 소통을 위해 계속 부딪쳤던 것 같아요.

찬연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이라는 곡을 아주 좋아해요. 노래방에 가면 무조건 고를 정도로요.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저에게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 노래 한 번 제대로 불러보겠다고 입에 볼펜 물고 수없이 연습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현진 부모님이 저의 청각장애 증상을 일찍 알아차리신 덕분에 네 살 때부터 10년 정도 언어치료를 받았어요. 백과사전 속 어려운 단어를 소리 내 읽으면서 혀의 근육 사용법을 하나하나 익혔어요.

청력을 잃으면 다른 감각이 발달하지 않나요?

현진 입모양만 보고도 발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발달한 것 같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입모양에 집중해선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읽힐 때가 있어요.

지식 저도 소통할 때 입을 보거든요. 그러다보니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속도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찬연 세 명 모두 남들보다 진동을 잘 느껴요. 덕분에 안무 연습 때 바닥의 울림으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요. 장애 때문에 학창 시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현진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쌓이다보니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어요. 친구는 “밤”이라고 했는데 저는 ‘갸’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얘는 우리랑 안 통해” 하면서 안놀아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찬연 제가 남들처럼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장애를 진단받기 전까진 남들도 제가 듣는 만큼 들리는 줄 알았거든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되물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친구들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먼저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친구 삼아 지냈어요.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지식 ‘말을 못할 것이다’, ‘본인 목소리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청각장애도 다양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선불리 판단하는 것 같아요.

찬연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쓸 거라는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수 준비를 하면서 수어를 처음으로 배웠어요. 지식어도 특수학교에서, 현진이는 대학 시절 청각장애 동아리에서 수어를 배웠다고 해요. 또 잘 듣다가도 어떤 부분은 놓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얘는 좀 어리숙하구나’라고 쉽게 판단해버려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웃음).

청각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나요?

현진 ‘어떻게 해야 한다’보다 피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필답이나 문자 등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좋아요. 청각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데 용기를 내고 비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하는 데 용기를 낸다면 더불어 살아가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현진 크게 달라진 점을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매년



사진:영원미디어

“‘말을 못할 것이다’, ‘본인 목소리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선불리 판단하는 것 같아요.”

-김지석

기관이나 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는 글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나요?

현진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가수,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수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엔 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있어요. 음악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진정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의 데뷔 준비 및 성장 과정은 빅오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이 넘었고 조회수가 100만을 넘는 쇼츠(짧은 영상)도 있다. 해외 팬도 많다. 이들의 영상에는 응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세상에 커다란 파도를 일으켜주세요.’ ‘덕분에 청각장애인도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청각장애 아이돌 그룹이라는 세상에 없던 도전을 위해 이들은 이미 수많은 파도를 넘었다. 그 파도가 이미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과연 가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빅오션은 자신들을 증명해나갈 준비를 이미 마쳤다. 4월 20일 이들은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까? **☑**

이근하 기자

권리보장은 더하고 돌봄 부담은 덜고

개인예산제, 맞춤형 통합 돌봄... 장애인 정책 6조 원 투입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는 상반기 중 시작된다.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돼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며 개인예산제 등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1:1 지원 • 주간 개별형 1:1 지원 • 주간 그룹형 1:1 지원

주간 그룹형 1:1 지원서비스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한 그룹형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기준단가	24,220원
서비스 제공시간	(주간) 09:00~18:00 • 일 최대 8시간 • 월 최대 176시간
서비스 제공방법	이용자-제공기관 계약 체결 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지법 제10조의2에 의거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처음 시행된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 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이 이뤄졌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24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을 실시하며 최초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건강 등 9대 정책 분야에 걸쳐 2023년보다 10%가량 늘어난 6조 원이 투입된다. 정책의 큰 방향은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장애인의 체육·관광·문화예술 확대 ▲장애인 이동, 편의, 안전 등 권익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13일 전남 목포 공생원에서 열린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생복지재단 아동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수선화 합창단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항상 등으로 나뉜다.

6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가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비스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11월 까지 시범사업 모의적용을 실시한 데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6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3년 정부는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 장애인 86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의 10% 또는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맞춰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간호(조무)사 등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개인별 선택권이 넓어지고 급여 이용이 효율화됐다. 다만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금액·서비스가 제한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2024년 개인예산액 상향 및 서비스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류·담배 등 지원 배제 항목 외에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내에서 구매·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8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210명이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종합계획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상반기 중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타해와 같은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등 세 가지다. 24시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 낮 활동을, 야간에는 별도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다가 주말에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주간 개별·주간 그룹형 서비스 이용자는 주중 낮 동안 산책, 체육, 음악 활동 등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 형태로 할 수 있다. 통합돌봄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모든 서비스에 일대일로 배치돼 대상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도전행동의 심각성 여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 반영해 선정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지원 체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 발달증진센터 4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인원을 1만 명에서 1만 1000명으로 늘리고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아울러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은 7만 9000명에서 8만 6000

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전문재활치료도 계속된다. 1기 사업 대상은 비수도권 15개 병의원으로 제한됐으나 이번에는 전국 39개 병의원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5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 의료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장애 유형·정도·특성에 따른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건강지표 및 정책목표 설정,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고 등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생애 단계별 교육 지원

교육 지원체계는 생애 단계별로 고도화된다. 우선 정부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62곳 추가하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연 80학급 이상으로 확충한다.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결과(K-DST) 중 ‘심화평가 권고’를 판정받은 자로 규정한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 소득 기준 하위 80%로 대상자를 한정했으나 2024년부터 소득·재산 기준을 없앤다.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 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편성한다. 더불어 통합학급 운영, 장애학

생 행동중재 지원, 장애 이해 및 인권보호 등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를 강화한다.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과정 장애학생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특수교육지원인력,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등)을 배치하고 ‘지역 자원 활용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도 대폭 늘린다. 장애학생 고등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3년 70개에서 2024년 82개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2023년 2550명에서 2024년 90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득 및 일자리 분야의 지원책도 다양해졌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1만 1630원) 높이고 부가급여액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끌어올린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000개 확대하고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에 못 미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고용컨설팅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 상향, 장애인 창업교육·자금 지원 등이 뒷받침된다.

피해장애아동 쉼터 추가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24년 저상버스 3765대를 도입하고 휠체어 승강·고정 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575대의 도입을 지원한다. 교통약자가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신설한다.

일상 속 장애인 편의시설은 더 늘어난다. 2023년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배리어프리 인증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기관 지원관리, 사후관리 등을 위한 인증운영기관 설치도 추진한다.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재난안전과 관련한 대응체계는 세분화된다. 정부는 재가 중증장애인의 재난 대피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학제팀(소방관 1인 및 장애인 전문가)의 가정방문형 재난 안전 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장애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을 추가해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를 고도화한다. 소방청 및 지역소방본부에는 장애 특성 이해 및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스포츠·관광·예술도 '배리어프리'

반다비체육센터 2027년까지 150곳 지원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함께 어울리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15곳을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 2023년 말 기준 누적 89곳을 지원했으며 2027년까지 150곳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반다비체육센터는 2022년 8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문을 열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시설 인증을 받았고 장애인을 위한 입수 보조 경사로가 설치된 수영장, 보치아·배드민턴 등 장애인 체육경기가 가능한 체육관으로 조성됐다. 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에 '만 19~64세'에서 '만 5~69세'로, 지원금을 1인당 월 9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14곳에서 17곳으로 확충하는 등 정부는 스포츠 분야 약자 프렌들리 정책 추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을 위한 기반도 더 단단해지고 있다. 정부는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새롭게 조성해 2024년 162곳까지 늘린다. 장애인 특화 여행코스도 유명한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 캠핑장 유니버설디자인카라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강원 춘천시 의암호 킹카누, 산 정상까지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대구 달성군 비슬산군립공원, 타포니 지형을 촉각과 해설로 경험할 수 있는 전북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등이 대표적 열린관광지로 꼽힌다. 정부는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릉시에 이어 무장애 관광권역 1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3년 10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연극 '사냥꾼의 먹이가 된 그림자'의 리허설 현장.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예술 창작자를 위한 공간이다. 사진 뉴시스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제작활동 지원 예산, 개인 창작·제작활동 최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 장애예술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 운영도 활성화한다. 모두예술극장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을 뜻한다. 정부는 11월 장애예술 표준전시장을 열고 개관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애인방송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방송수신기(TV) 성능 개선 및 보급을 확대해 방송 시청의 격차를 해소한다. 장애인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며 장애인학대 보도권고기준 모니터링 등의 연구를 실시한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중 '장애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을 선별해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종 중심으로 대면 실태조사 실시, 피해사례 발견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

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피해장애아 동심터는 현재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은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 누락자를 발굴해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정신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신규 설치를 지원하고 비거주 정신재활시설

정원 제한규정을 폐지해 이용인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장애인 정책의 추진 기반과 국제협력 또한 강화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국회 입법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장애 모델 관련 연구를 추진하며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근하 기자

“AI 기술 G3 도약 위해 2027년까지 AI·AI반도체에 9조 4000억 투자”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에는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TSMC의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월 세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윤석열 대통령이 4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AI와 AI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했다. 또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의 일부 가동 중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며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2023년 12월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2024년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



4월 9일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전용부두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양경찰 3005함 승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치고 3월 30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불법조업, 안보 차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다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와 2015년 응급환자 이송 작전 중 함정 충돌 사고로 순직한 고 오진석 경감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을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다.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씹쓸이한다”는 호소를 듣고 해양수산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를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간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

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 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는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ی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지금 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점검하고자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K**

강정미 기자

스타트업 청년과 만난 윤 대통령

“청년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 스타트업 성장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이라며 청년 벤처·스타트업 종사자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정부의 빈틈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스타트업 청년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기업이 정신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 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에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며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겠다”며 “세금 부담 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돈관리 스스로 이제 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하세요

금융위원회는 4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분산돼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를 중점으로 삼아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4세 이상 청소년

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 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용자가 배달 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 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미사용 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된다.



4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및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사진 금융위원회

대포폰·대포통장 근절 위해 정부 부처 손 잡았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이 공동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당국과 금

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에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금융·통신업계 공동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손을 잡았다. 사진은 전남경찰청이 2023년 7월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조직원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과 대포폰. 사진 뉴시스

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불이익에 해당하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조정으로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

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학 손잡고 글로벌 데이터 인재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분야의 글로벌 협력과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데이터 최고 전략가를 양성하는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총 3개 대학을 지원한다고 4월 5일 발표했다.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인력양성을 뛰어넘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전략 등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원)을 공모해 2029년까지 각각 최대 8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학(원)과 글로벌 최고 수준 대학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인재

를 양성하기로 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전략, 글로벌 문제해결 프로젝트, 글로벌 공동연구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융합 석사 학위과정을 지원해 해마다 30명 이상의 리더급 데이터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지원 과정은 해외교육형 2개 대학과 해외연계형 1개 대학으로 나뉜다. 해외교육형은 기업형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포함한 졸업학점의 40% 이상을 해외 현지 교육으로 수행하고 해외연계형은 국내에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사업공고 등 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콘텐츠 산업 이끌 예비창업자·새싹기업 160여 개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올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를 공모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사업화, 액셀러레이터 연계, 선도기업 연계, 투자 연계 지원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는 70개 예비창업팀을 선발해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과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40개 새싹기업을 선발해 최대 9000만 원의 사업

화 자금과 전담 멘토링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5억 원 규모의 액셀러레이터 연계 투자도 제공한다.

선도기업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새싹기업 18개사를 선발하며 국내 육성 최대 6700만 원, 해외 진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반시설, 지식재산(IP), 공간, 플랫폼, 솔루션 등 선도기업의 자원을 제공한다. 투자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30여 개 기업을 선발해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4월 15일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분야별 추진 방향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분야별 담당자와 일대일 상담을 운영한다. 예비창업자나 새싹기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누디트 익선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성과 공유회'에서 관람객들이 K-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사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타트업 무료 법률 자문 지원해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의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누리집(k-startup.go.kr)을 통해 법률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를 지원

할 예정이다. 1개사당 100만 원 이내를 지원받는다.

7월부터는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

영유아 시설 종사자 결핵 환자 증가 결핵 검진 받으세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영유아 시설 종사자 가운데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수도권에서 전년 같은 기간(1~3월) 대비 5건 증가한 총 11건이 발생했다. 2세 미만의 소아는 평생에 걸쳐 결핵이 발병할 위험률이 40~50%로 높다. 특히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 및 좁쌀결핵은 5세 미만의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이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결핵 예방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 검진 및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이상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또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등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화재 알람시설 설치 노후 전선 정비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알람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알람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사진 뉴시스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 알람시설을 설치하면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시장은 영업 점포의 20% 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mss.go.kr)을 참고하면 된다. **K**

하주희 기자



3월 18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원에서 농민들이 올해 첫 조생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농번기 인력 문제 해결! 역대 최대 인력 투입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대 최대 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등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정부는 4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4년 계절성 농업 인력 수요는 2023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고용 인력 공급여건은 외국인력 배정 규모 확대로 양호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72% 가량은 농번기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농번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이 구성·운영된다. 또한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하고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히 대응한다. 대책반을 운영하지 않는 시기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계절근로 4만 5600명 투입

정부는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고용허가 공급 규모를 2023년보다 1000명 늘린 1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절근로 배정 규모를 2023년 3만 5600명에서 2024년 4만 5600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를 활용하는 시·군도 2023년보다 3곳 늘려 13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하

는 국가의 사정으로 적시에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 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한다.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023년 19곳에서 2024년 7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인력 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2023년 170곳에서 2024년 189곳으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과 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한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게 2024년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내·외국인 공급 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 인력 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발작물농업화 기계화 우수모델을 확립하고 지역 내 확산을 추진한다. 2024년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27개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조기 발견·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선거 현수막으로 멋진 재활용품 만들기 도전하세요!

재활용 사업에 15억 지원… 경진대회도



2022년 6월 28일 경기 수원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게시됐던 폐현수막 등으로 낙엽 수거용 자루를 만들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 중구는 선거 후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기관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2023년 10월 주민·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하는 ‘남도 푸른바다 큰물고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경기 파주시는 2023년 12월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 수거한 현수막으로 건축자재를 제작해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폐현수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재활용 지원사업과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4월 8일 전국 지자체에 총 15억 원을 지원해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와 함께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되는 등 관리를 강화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돼 지자체가 수거하는 현수막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선거 때 발생한 폐현수막 양을 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557톤(약 260만 장), 대통령선거 당시 1111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1739톤 등이었다. 이 3개 선거 때 수거된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모두 25%에 못 미쳤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와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할 수 있는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돕는다. 실제로 2022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21개 지자체에 지원해 폐현수막으로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을 15만 2709개, 고체연료를 225톤 만든 바 있다.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모범적인 현수막 순환의 본모습을 제시하는 기관을 시상하고 홍보를 지원한다.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올해 처음 연다. 4월 9일 대회 계획을 공지했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맞춰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사업으로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를 갖출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협업의 본모습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수거한 많은 현수막을 소각·매립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보를 할 때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활용하고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미 발생한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유슬기 기자

공연·전시 맘껏 즐길 수 있게

청년 문화예술패스

올해 성인이 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주목!
정부가 공연·전시 관람에 쓸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해줘요.

2005년생 누구나 신청 최대 15만 원 지원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15~19세)의 76.1%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은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비용(33.8%)을 꼽았어요.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들 역시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비싼 물가가 걱정일 텐데요. 이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올해 전국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청년들의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문화패스제도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특히 프랑스는 15세는 20유로, 16·17세는 각 30유로, 18세는 300유로를 주는 등 조건 없이 4년간 총 38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문화활동에 대한 비용부담이 큰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나아가 미래 문화예술시장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취지예요.

우리나라의 청년 문화예술패스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국내에 거주하

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3월 2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문화예술패스를 신청순으로 발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19세 청년 1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에요.

문화예술패스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용 범위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이에요. 신청은 문화예술패스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하면 돼요.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면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역별 배정인원 이내라면 국비 10만 원은 포인트로 즉시 받고 지방비 5만 원은 신청자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에요.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 발 빠르게 신청하고 이용하는 게 좋겠지요? ☑

조윤 기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대한민국 19세 청년(2005년 출생자)

지원 내용

1인당 연 10만~15만 원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신청 방법

청년 문화예술패스 협력 예매처
(인터파크, 예스24)

신청 기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순 지급)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문의

청년 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
1577-196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붉은 누룩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제를 먹은 뒤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붉은 누룩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건강식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최근 해당 제품을 복용한 사람들 중 사망하거나 입원 진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90정', '낫토 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40정',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45정·60정·90정)' 등 5개 제품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된다. 고바야시 제약은 3월 29일 오사카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 데 깊이 사과드린다"며 "(문제된 성분인) 곰팡이로부터 생성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히 해명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바야시 제약이 자진회수 중인 제품들의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3월 30일 기준 수입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원료를 사용한 자국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이들 제품도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붉은 누룩은 쌀 등을 붉은 누룩곰팡이(홍국균)로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홍국은 피를 잘 돌게 하고 음식이 소화

되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아울러 붉은 누룩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모나콜린K'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식약처도 홍국에 대해 "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발효 중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홍국 관련 건강기능식품에서 시트리닌의 함량 기준치를 0.05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홍국 함유 제품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 품목들이 향후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붉은 누룩 원료가 함유된 일본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고바야시 제약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수입 때마다 증명하도록 조치했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른'에서 위해식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식품을 섭취해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 국제거래 상담'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근하 기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자진회수 중인 붉은 누룩 관련 건강식품 중 일부. 3월 30일 기준 국내에 수입된 제품은 없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 제약사 건강식품 먹고 사망·입원 환자 잇따라 붉은 누룩 홍국균이 주범?

2028년 스포츠산업 100조 시대로! 매출 100억 이상 혁신기업 1000개 육성

정부는 2028년 스포츠산업 규모 1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기업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9일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스포츠산업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스포츠산업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을 기준으로 78조 1069억 원에 달한다.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과 비교했을 때 주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과 내수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산업의 성장성을 일시에 끌어올릴 만한 정책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 스포츠산업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중심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이라는 비전하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3개 전략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통해 2028년 스포츠산업 규모 100조 원 시대를 열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스포츠 혁신기업을 1000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스포츠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해외시장에서도 스포츠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고도화한다. 먼저 3년 평

균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인 고성장 스포츠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해외 진출, 고용 지원 등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 마케팅·에이전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스포츠 이벤트를 더 많이 개최하고 프로스포츠의 수익을 개선해 스포츠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다음으로 스포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2024년 스포츠 서비스기업의 초기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용 콘텐츠 개발, 현지 사업 운영 준비, 홍보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해 추진 중이다. 국내 스포츠기업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해외시장에 진출한 스포츠기업 중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예비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스포츠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기존의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장기적으로 '스포츠코리아랩(가칭)'으로 개편, 신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하며 기술교육과 실험을 제공하는 등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스포츠산업의 컨트론타워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핵심목표(2022년→2028년)

스포츠산업 규모 100조 원 시대 도약

78조 원 → 105조 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스포츠 혁신기업 육성

872개 → 1000개

지역 사업체 수 증가로 지역균형발전

50.2% → 55.0%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 60만 명 달성

44만 명 → 60만 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월 8일 스포츠산업계 관계자들과 '스포츠기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스포츠산업은 시설·용품·서비스 등 범위가 넓고 관광·콘텐츠·지역과의 연계 등 확장성도 높아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 반면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센터는 지역 소재 스포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의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법률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도 활성화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기술·관광·콘텐츠 등 고부가가치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기반을 형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

선 스포츠 참여·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개인 의료정보와 연계된 '휴먼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 개인의 체력과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체상태와 체력향상도를 분석·예측하는 서비스 기술을 개발한다.

스마트경기장 기술도 개발할 전망이다. 얼굴인식 기술, 테러감지 기술 등을 통해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조명·음향시설 등 시설을 첨단화하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진동을 감지하는 장애인 좌석을 개발하고 청각장애인용 응원가사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확대한다.

K-컬처와 연계한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K-스포츠산업 허브를 구축하고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K-스포츠 종주국 종목인 태권도·이스포츠와 인프라가 갖춰진 자전거·트레킹·동계스포츠 중심의 스포츠관광 상품을 운영한다.

균형발전 이끄는 스포츠산업

정부는 지역의 스포츠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관련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 주도의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지역을 스포츠 대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서평으로 유명한 강원 양양군,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집결돼 있는 충북 단양군과 같이 자생적으로 민간 스포츠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을 '스포츠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쓰레기매립장 등의 유희부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선정과정을 거쳐 공공형 대중골프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민간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시설안전·소비자안심 시설 인증제를 확대 운영하고 이런 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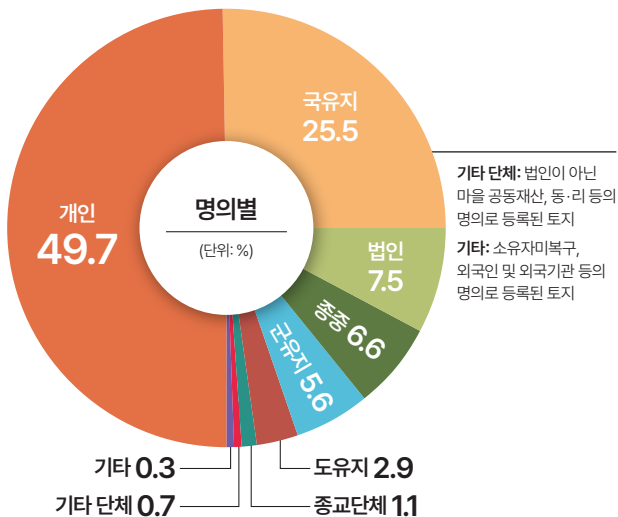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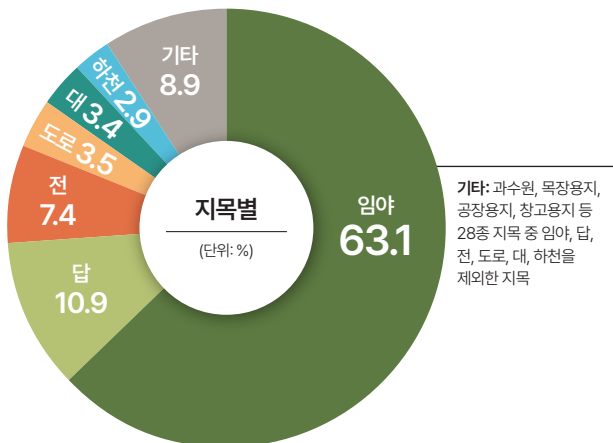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산업은 시설·용품·서비스 등 범위가 넓고 관광·콘텐츠·지역과의 연계 등 확장성도 높아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문체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

김효정 기자

작년 국토 면적 '여의도 두 배'만큼 늘어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40% 증가

토지이용 현황 및 소유자별 분석(지적공부 등록 기준)

* 총계 10만 449.4km² (3963만 2000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두 배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소유자는 '개인'이 49.7%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국토 대비 면적은 10년 만에 40.6%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지적통계'를 4월 1일 발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과 토지의 종류, 소유자별 필지와 면적 등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정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산림·농경지 줄고 공장·도로 늘어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49.4km²로 전년 대비 5.8km² 증가했다. 증가분은 여의도 면적(2.9km²)의 두 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의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여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새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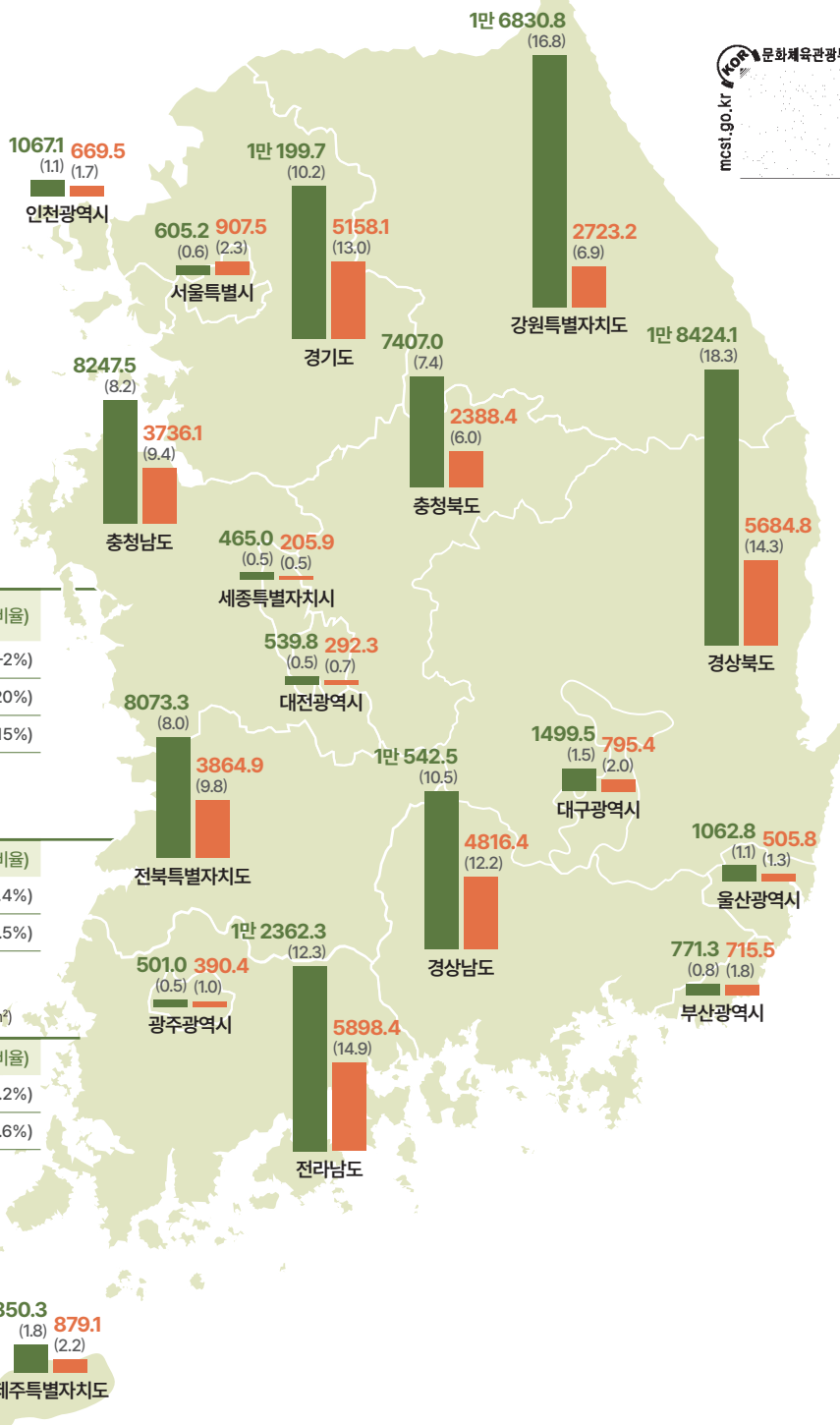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1만 8424km²)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강원(1만 6831km², 16.8%), 전남(1만 2362km², 12.3%) 순으로 면적이 크다. 반대로 가장 면적이 작은 곳 1~3위는 세종(465km²), 광주(501km²), 대전(539.8km²)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속해 있던 군위군이 새로 편입된 대구시(1499km²)는 특별·광역시 중 가장 면적이 커졌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는 2%(1764km²) 감소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공장·학교·주유소·창고 용지)은 20%(846km²) 증가했다.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15%(479km²)나 늘었다. 공장용지의 경우는 비수도권(816.2km²)이 수도권(285.2km²)의 세 배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수도권(34.4%)과 비수도권(28.5%)의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721.7km²)은 2014년 대비 약 40.6%나 증가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주거방식의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집합건물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지이용현황(지목)별로 보면 임야(63.1%)의 비율이 가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 면적 ■ 지번수
단위: km², ()안은 비율 %



면적 변동현황

주요 시설 면적 변동 (단위: km²)

연도	2014년 기준	2024년 기준	10년간 증감(비율)
산림·농경지	8만 4515.6	8만 2387.8	-1763.8(-2%)
생활기반 시설	4128.9	4974.5	845.6(20%)
교통기반 시설	3193.0	3672.1	479.1(15%)

수도권·비수도권 공장용지 면적 변동 추이 (단위: km²)

연도	2018	2020	2022	2024	10년간 증감(비율)
수도권	251.1	263.1	275.5	285.2	72.9(34.4%)
비수도권	740.2	769.5	794.0	816.5	181.1(28.5%)

집합건물 등록 필지(지번), 면적 변동 추이 (단위: 1000필, km²)

연도	2018	2020	2022	2024	10년간 증감(비율)
필지수	379	399	411	422	96(29.2%)
면적	595.7	641.2	679.6	721.7	208.4(40.6%)

자료 국토교통부

장 높고 답(10.9%), 전(7.4%)이 뒤를 이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82%를 차지한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소유 명칭은 ‘개인’이 49.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유지(25.5%)와 공유지(8.5%)가 많다. 10년 전과 비교해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km², 123km²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사업용 토지가 많아진 탓이다. 산림경영

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개 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e-나라지표(inde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

조윤 기자

필수의료진 보상 공정하게!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4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2023년 기준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과다 보상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공정성,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한다.

보험사기도 적극 방지한다.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4월 8일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4월 9일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특히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필수의료에 국가 재정을 확대 투입할 것을 약속했다. 병원 관계자가 2차 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윤 대통령은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4월 11일 365일 24시간 시행되는 중증·응급 심장전문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장전



윤석열 대통령이 4월 9일
경기 부천시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문병원의 고난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월부터 시행 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에 남는 의료인력 확충

정부의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도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지역의대를 졸업해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에 정착하는 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정부는 4월 5일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치 방향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율은 2025학년도 정원 배치 이후 72.4%로 높아졌다. 그러나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이 불균형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고 수도권에 정착하는 의사가 상당수 존재하게 되고 지역의 의료인력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 아래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치할 때 비수도권 배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지 전공의 배치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교수를 증원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는 등 지역 내 수련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4월 5일 브리핑에서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응급환자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회의에 본격 착수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등중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본 계획은 2023년 3월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4월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송지침을 마련하며 구급대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박 차관은 4월 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찾아 의료계 의견 청취하고 신속 개선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4월 5일에는 제6차 의료개혁정책토론회가 열려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 현장 의료진과 환자단체, 언론, 학계가 모여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아 연령 가산 확대 등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와 연동된 공정한 보상체제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만 전반적인 의료이용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꼼꼼히 검

토해 필수의료 공정보상을 위한 세부 대책을 보완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월 1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한국병원, 대전 유성선병원, 충남 공주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을 잇따라 찾아 의료개혁에 필요한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는 의료수가와 관련해 소아·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더욱 상향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에 정부는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소아 외과계열 수술·처치와 마취에 대한 연령 가산을 최대 1000% 인상하는 등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3월 26일 방문한 청주한국병원과 4월 1일 유성선병원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도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마련했고 기획재정부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는데 박 차관은 “2차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월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 원의 기능보강비와 519억 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와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4월 5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만

금 실력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이 부족하다며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 원의 건립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교육부·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지속 소통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의대 수업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9일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에서 “의대 수업이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각 대학들도 수업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일부 의대 중심으로 재개된 수업이 점차 많은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 중 대부분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4월 8일 기준으로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16개교가 수업을 시작했고 가톨릭대, 부산대, 아주대, 인하대 등 23개 대학은 4월 중 수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오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의학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대학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학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듣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계속해 의료계와의 소통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박 차관은 4월 8일 브리핑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4월 4일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첫 면담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텃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대화에도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K**

김효정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진료지원 간호사 2700명 충원 계획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실시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인력공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있다. 그중 하나로 정부는 2월 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더해 2700명이 충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병원별로 실시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진료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급여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르면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 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안전하다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6·25참전용사 찾아 세계로… 평택 미군기지서 전시하는 라미 현 작가

2700여 명 노병의 삶이 사진에 “70년 지났어도 감사 인사 해야죠”

굳게 닫힌 문을 열자 캄캄한 병실 침대 위에 환자가 누워 있다. 말할 기운조차 없어 보이는 그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사진을 찍겠다고 했다. 침대 밖을 벗어날 수 없는 환자를 어떻게 렌즈에 담을까? 그때 병실 구석에 잔뜩 쌓여 있는 하얀 지관통이 눈에 띄었다. 아프기 전 그린 작품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작품걸이를 자처한 병원 직원들은 두 팔로 대형 그림을 들어 올렸고 또 다른 작품들은 환자의 담요이자 카펫이 돼 병실 곳곳을 장식했다. 일순간 무채색의 병실은 형형색색 그림들로 가득한 작은 화실이 됐다. 그림의 주인, 표정 없던 그의 얼굴에 이내 미소가 번진 순간 카메라 셔터가 눌러졌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6·25전쟁 미 해군 참전용사 존 스포포스다. 그는 전쟁 중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접한 것이 계기가 돼 고국으로 돌아간 뒤 도예를 공부했고 이후엔 평생 그림을 그렸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작품과 함께 있고 싶었던 그는 자신의 소망을 이뤘다. 라미 현(본명 현효제) 작가가 사진으로 그를 기록한 덕분이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노병의 전 생애가 담겼다.

라미 작가는 “그곳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병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작품을 만들어낸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 작가의 작업실로 표현되길 바랐다”며 “소원을 이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했다.

라미 작가는 전 세계 6·25참전용사들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액자에 넣어 선물하는 일을 한다. 이른바 ‘프로젝트 솔저(project soldier)’다. 지난 7년여간 그의 렌즈에

담긴 이들의 숫자는 2700여 명.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등 국적도 다양하다. 70여 년 전 이국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를 건너온 이들을 만나러 이제 라미 작가가 먼 길을 거슬러 간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털어가며 이 같은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대답은 심플했다. 그저 ‘감사함’ 때문이라고. 우리가 공기처럼 마시는 평화가, 애써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그들 덕분임을 아는 까닭이다. 더욱이 외국에서 6·25전쟁은 ‘잊힌 전쟁’으로 불리는 탓에 참전용사들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했다. 그들에게 이제라도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는 게 라미 작가의 생각이다. 사진 촬영 후 액자 값을 물어오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액자 값은 70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미 작가는 수년간 만난 6·25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제작해 유튜브(@projectsoldier)에 올리고 있다. 수류탄에 맞아 팔과 다리를 잃은 이의 생생한 증언, 눈 앞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열여덟 소년병의 회고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거슬러 보는 이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라미 작가는 ‘시간의 증언자’들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4월엔 평택 주한 미군기지에서 사진전을 열고 그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아이엠 어 솔저(I am a soldier)’ 프로젝트가 이 일의 시작이었다고요.
10년 전쯤 육군 홍보영상을 찍기 위해 군인 80명을 인터뷰



라미 현 작가는 전 세계
6·25참전용사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선물한다.
사진 C영상미디어

했어요. 그때 한 원사가 28년간의 군 생활은 자랑스럽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럽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군 생활이 바빠 한 번도 가족과 여행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 역시 사정이 비슷했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게 사진을 찍어주는 거였어요.

해외 참전용사를 찾아 나선 계기는 뭔가요?

그간 찍은 군인 사진을 모아 2016년 전시회를 했는데 미 해병대 6·25참전용사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눈빛이 남달랐어요. 자기 나라 전쟁에 참전했던 것도 아닌데 저런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싶었죠. 두고두고 그 얼굴이 잊히지 않아 참전용사들을 찾아 나섰어요.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들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영국 대사관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고 한 참전용사를 소개해줬어요. 영국에서 만난 그는 한국 청년이 건네는 감사 인사 한 마디에 인생을 보상받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영국군 참전용사협회에도 와달라고 해 한 달 뒤 다시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 인연이 이어져왔죠.

촬영 과정이 궁금해요.

보통 한 분을 촬영하는 데 세 시간 정도 걸려요. 먼저 한 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고 난 뒤 사진을 찍죠. 좋은 장면을 찍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지 아세요? 바로 그 순간, 거기 카메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전용사들은 어느 순간 70년 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기쁨, 슬픔, 회한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죠. 저는 그때 셔터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사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인화해 액자에 담아 전달해드려요.

영상에서 본 그들의 이야기도 무척 흥미로워요.

참전용사들이 정말 원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거예요. 사진 찍어드리고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전하는 데서 끝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당시 미 참전용사 중 상당수가 10대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6·25 전쟁이 발발한 탓에 소년 병사들이 간 거예요. 그들은 낯선 땅에서 동료들이 스러져가는 걸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꼈죠. 게다가 참전용사 중 30%

영국군 참전용사협회 회원들(왼쪽)과 참전 후 미국으로 돌아가 평생 그림을 그린 존 스포포스. 모두 라미 현 작가가 찍은 6·25참전용사의 모습이다. 사진 라미 현



정도는 자발적으로 왔어요. 제가 만난 한 용사는 형, 삼촌, 아버지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은 전쟁을 매우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요. 우리나라에 온 것도 '남한이 북한의 남침을 받았더니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느낄 수 있어요.

라미 작가가 만난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한 편의 소설이자 역사다. 미 육군 장교로 6·25전쟁에 참전한 윌리엄 웨버는 대규모 중공군 공격에 가담했다 한밤중 수류탄에 맞아 한쪽 팔을 잃고 몇 시간 뒤 한쪽 다리마저 잃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를 “나라를 위해 누구냐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 영하 30℃ 추위에 떨던 전쟁고아들을 위해 나무로 헛간을 지어 미군기지에 머무르게 해준 이들도 있었다. 당시 열아홉 살의 미 공군 참전용사였던 레스 크롬웰은 70년이 지난 뒤 한국 청년이 가져온 태극기를 보자마자 오열했다.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른다”며. 라미 작가는 “그간 만난 모든 이들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다.

스스로 '영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많은 참전용사가 자기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어요. 그들은 진짜 영웅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게다가 6·25전쟁은 한동안 외국에서 ‘잊힌 전쟁’으로 불렸고 전쟁이 아닌 ‘폴리스 액션(치안활동)’이라고 폄하되기도 했어요. 자부심을 가진 이들도 많지만 전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죠. 2년 전 만난 제이 코브 루디는 6·25전쟁 때 전차장으로 수많은 전투를 치른 탓에 100세 가까운 나이에도 트라우마를 안고 계셨어요. 신기한 건 사진을 찍은 뒤엔 웅어리진 마음이 풀어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집쟁이’였다고 말하던 이가 ‘나도 군인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달라진 우리나라 모습엔 어떤 반응인가요?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결정된 날, 전 세계 뉴스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향후 100년간 이 땅에 문명의 빛은 없을 거다’라고요. 전쟁으로 사람들은 죽어 나갔는데 승자도 패자도 없고 서로 땅을 뺏고 뺏긴 것도 아니잖아요. 참전용사들도 허탈감이 컸어요. 그러다 몇십 년 뒤 TV에 나온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선 충격을 받은 거죠. 저게 서울이라고? 저게 한국이라고?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보고 놀랐다는 분이 많더군요.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대한민국에 우리가 뿌린 자유의 작은 씨앗을 한국인들이 정말 잘 키워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다고요.

캠핑카를 타고 참전용사를 찾아다니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2021년부터 11개월 동안 미국 40개 주를 돌면서 200여 명

의 참전용사를 만났어요. 차로 다닌 거리만 5만 5000km나 되더군요. 하루 평균 네 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힘들었어요. 카메라, 렌즈, 조명, 프린터기 등 장비만 120kg 정도예요. 그걸 계속 이고 지고 다니는 것부터가 엄청난 노동이죠. 그때 자원봉사로 따라온 친구가 “이거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아니냐”고 하더군요(웃음). 매번 해외에 나가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 한 번 나갈 때 캠핑카를 렌트해서 여러 곳을 다녀오는 거예요. 매번 ‘한 분만 더...’ 하는 생각으로 버팁니다.

모든 비용을 자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고요.

차도 팔고 카메라 렌즈도 팔아가며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다고 하면 비행기 샀·호텔 비·식비 대주는 분들, 이름을 밝히지 않고 3000달러를 후원해준 한인도 있었죠. 지금은 법인을 세워 후원을 받고 있어요. 후원이 있어야 더 많은 분을 찾아갈 수 있어요.

재정적·육체적 어려움 외에 힘든 건 없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참전용사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촬영하기로 한 날 아침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의 아내와 껴안고 펄펄 울었습니다.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는 노릇이에요. 아무리 많은 이들을 만나도 90세 가까이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는 다 달라요. 그걸 잘 기록해 남겨두면 10년 뒤, 100년 뒤에도 누군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집안에서, 한 나라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 역사 속에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죠.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스로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자유는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쟁취한 것이라는 걸 배웠죠. 또 제가 만난 이들의 이야기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더군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죠. 요샌 우리나라 6·25참전용사를 찾아가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참전용사 마실가다’ 프로젝트도 하는데 어르신 얘기 들으며 밥 한 끼 하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워요. 이젠 그런 일상의 모든 순간이 행복이란 걸 압니다. **K**

조윤 기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를 꿈꾸다

“나트륨 이온은 리튬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다른 재료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또 가벼운 데다 소금(염화나트륨)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바닷물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저렴하다. 추위에도 강해 영하 20°C 이하에서도 90% 이상 성능을 발휘한다.”



김형자

<Newton> 편집장 출신으로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과학 칼럼니스트.
<구명으로 발견한 과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배터리 제조기업인 중국의 CATL(닝더스다이)부터 스웨덴의 2차전지 업체 알트리스(Altris)까지 전기차용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에 속속 뛰어들며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나트륨은 소금(염화나트륨)의 주성분이다. 그런데 소금을 어떻게 배터리 소재로 사용하게 됐을까?

리튬전지, 안정적이지만 발화 가능성 우려

배터리는 화학반응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다. 구성 요소로는 크게 음극과 양극, 분리막, 전해질(배터리액) 등 4개로 나눌 수 있다. 전해질 속에 금속판 두 종류가 들어 있는데 그 두 금속판이 전해질과 화학반응을 하면서 전기를 만든다.

금속판의 한쪽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양극(+)이고 다른 한쪽은 전자를 내보내는 음극(-)이다.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를 오가는 이온의 통로 역할을 하고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면 불이 나기 때문에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배터리는 이렇게 두 금속판이 전해질을 통해 반응하면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 ‘산화·환원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낸다.

보통 배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전지’와 충전을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2차전지’로 나뉜다. 납 축전지, 니켈 카드뮴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등이 2차전지에 속한다. 과거에는 주로 니켈이나 납으로 2차전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무거운 게 흠이었다. 때문에 충전으로 운행하는 전기차나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2차전지는 리튬을 소재로 한 ‘리튬 이온 배터리’다. 무게가 니켈 배터리의 반밖에 되지 않아 가볍고 같은 무게라면 배터리 용량도 세 배나 크다. 성능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도 있다. 전자를 쉽게 내놓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효율도 좋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많이 쓰이는 가장 대중적인 제품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을 전원에 연결하면 양극에 있던 리튬 이온(Li+)이 전해질을 통해 전자와 함께 음극으로 향

한다. 양극의 리튬 이온과 전자가 음극으로 다 옮겨가면 충전(전력 저장)이 끝난 것이다. 반대로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양극으로 가면 전류가 흐르고 전부 양극으로 이동하면 방전(전력 사용) 상태가 된다.

다만 발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민거리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강한 충격을 받거나 고온에 노출되면 액체인 전해질과의 화학반응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 비행기에서 리튬 이온 보조 배터리를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것도 이런 점을 우려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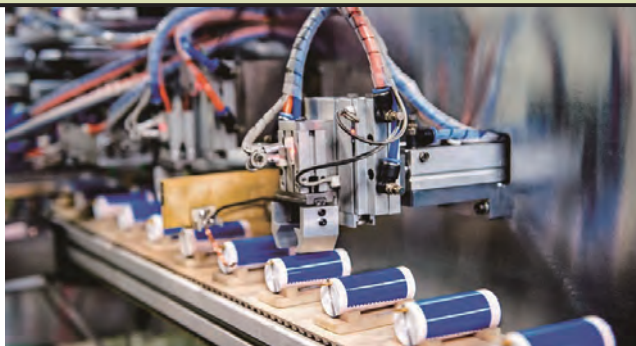
서울시에 따르면 2016~2018년 휴대전화나 전동킥보드 등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폭발한 사고가 100여 건에 달한다. 또 리튬은 아메리카 대륙과 중국, 호주 등 지구촌 일부 지역에서만 나오는 금속이기 때문에 희귀하고 값이 비싸서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산업계에선 이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solid-state battery)’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리튬 이온이 오가는 통로인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든 2차전지다. 발화 가능성은 낮지만 고체 전해질은 액체보다 전도성이 낮고 여전히 희귀한 금속인 리튬을 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성비 끝판왕 나트륨 배터리, 2035년 시장 규모 연간 19조 원
그래서 과학계는 최근 값비싼 리튬을 나트륨으로 대체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다. 나트륨 이온은 리튬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다른 재료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또 가벼운 데다 소금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바닷물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저렴하다. 추위에도 강해 영하 20℃ 이하에서도 90% 이상 성능을 발휘한다.

생산공정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와 상당히 비슷하다. 소재는 대부분 바뀌지만 제조기술 자체엔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제조사 입장에서 큰 장점이다. 생산라인을 다 바꿀 필요 없이 기술 일부만 교체하면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에너지 변환 효율)가 낮아 저장 용량이 작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달리 말하면 비슷한 무게·부피라면 1회 완충 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더 짧을 수밖에



중국 공장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생산되고 있다. 자료 게티이미지

없다는 것이다. 전기 생산만큼 중요한 숙제가 바로 ‘저장’이다. 저장 용량을 높이려면 전극을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전기저항이 커져서 배터리 수명이 짧아진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4월 중국의 배터리 기업 CATL이 160Wh/kg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체리자동차에 공급했다. 체리자동차는 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상용화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또 CATL은 이보다 월등한 200Wh/kg의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인데 체리자동차는 올해 안에 이를 장착한 새 전기차 ‘아이카(iCAR)’를 출시할 예정이다. 올 1월에는 이룬 전동차업체 야디(Yadi)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나트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영국의 파라디온(Faradion), 스웨덴의 알트리스, 프랑스의 티아마트(Tiamat), 미국의 나트론(Natron) 등은 나트륨 배터리 양산계획을 발표하고 개발에 몰두 중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만 이뤄지고 있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제조하겠다고 발표한 기업은 에너지11이 유일하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보다 최대 24%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2035년 연간 19조 원 규모의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리튬 이온 배터리 못지않은 저장 용량과 성능, 가벼운 무게를 가진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해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K**

“미세먼지가 삶에 큰 영향” 92.6% 매일 아침 농도 확인 “해결책은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거나 꽃구경 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봄은 많은 사람이 기다린 반가운 계절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는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해요. 파란 하늘을 기대하며 창문을 열었다가 뿌연 공기에 실망하는 일은 봄의 또 다른 일상이 돼버렸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외출이 망설여지고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MZ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MZ세대가 생각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일상 속 ‘루틴’

MZ세대 사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습관은 이제 일상 속 ‘루틴’으로 자리잡은 듯해요. 설문 참여자 중 무려 46.3%가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한다’고 응답했고 ‘주 1~2회 확인한다’고 답한 비율도 31.9%에 달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MZ세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설

MZ세대 참여자

미세먼지
농도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

매일
46.3%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마스크 착용
62.0%

Q 평소 미세먼지 농도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

① 매일 ② 주 1~2회 ③ 월 1~2회 ④ 거의 확인하지 않음

어떤 방법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나요?

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② 인터넷 포털 사이트
③ TV 뉴스 ④ 라디오 ⑤ 기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① 외출 자제 ② 마스크 착용 ③ 공기청정기 가동
④ 영양분 섭취 및 건강관리 ⑤ 기타

미세먼지 때문에 구매한 것이 있나요?

① 공기청정기 ② 마스크 ③ 실내 식물
④ 의류 살균기(스타일러 등) ⑤ 없음 ⑥ 기타

미세먼지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나요?

① 야외 운동(조깅, 등산 등) ② 창문 열기 ③ 소풍
④ 실외 행사 참여 ⑤ 없음 ⑥ 기타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크다 ② 어느 정도 크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어피티가 **514**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 3월 29일~4월 5일 어피티 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514명의 대답은?

미세먼지 때문에 구매한 것이 있나요?
1위 마스크
2위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나요?
1위 창문 열기
2위 야외 운동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국내 대기오염 규제 강화
- ② 국제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
- ③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 ④ 친환경 교통 정책 추진
- ⑤ 녹지 공간 및 도시 숲 조성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공장, 발전소 등 산업 활동
- ② 중국 등 인접 국가의 영향
- ③ 자동차 배출가스
- ④ 가정 및 상업용 난방
- ⑤ 자연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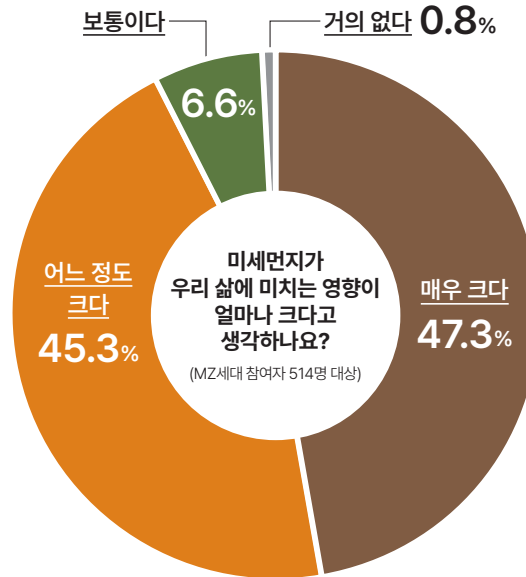
개인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대중교통 이용 및 친환경 차량 사용 증가
- ②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사용 및 절약
- ③ 쓰레기 배출 줄이기
- ④ 친환경 제품 사용 및 환경 보호 캠페인 참여
- ⑤ 식물 기르기 및 나무 심기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됐을 경우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이민 고려
- ② 출산 계획 재고
- ③ 건강관리 및 예방에 더 많은 투자
- ④ 직업 선택에 영향(예: 실외 작업을 피하는 직업 선호)
- ⑤ 생활환경의 변화
- ⑥ 기타

게티이미지



문 참여자 중 62%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한다'고 답했어요. 그러나 20.2%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한다'고 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구매한 제품을 묻는 질문에는 '마스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가 2위를 차지했어요. 고가의 가전 제품을 구매했다는 것은 MZ세대가 미세먼지에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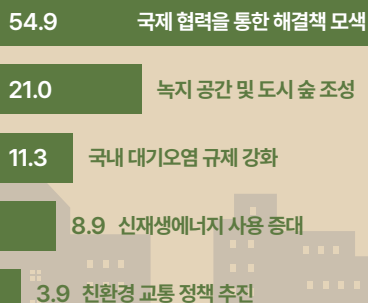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많이 포기한 것으로는 실내 환기를 위한 '창문 열기'가 꼽혔고 조깅, 등산 등 '야외 운동'과 '소풍'이 뒤를 이었어요.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려 47.3%가 '매우 크다', 45.3%가 '어느 정도 크다'고 응답했어요. '전혀 없다'는 답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면 미세먼지를 개인의 건강·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국민 전체의 노력,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장기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이에요. 이에 대한 MZ세대의 생각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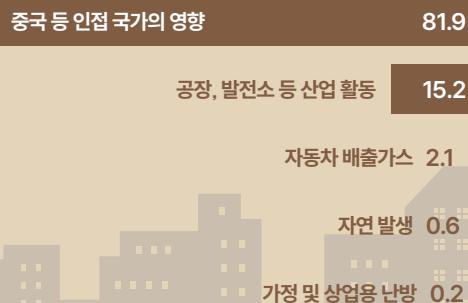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MZ세대 참여자 514명 대상, 단위: %)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MZ세대 참여자 514명 대상, 단위: %)



“원인도 해결책도 ‘주변 국가’에 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어요. 81.9%가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등 인접 국가의 영향’을 지목했어요. 이러한 MZ세대의 생각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4.9%가 ‘국제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선택했어요. 미세먼지는 바람과 대기흐름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M세대 참관두님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대기환경에 걱정을 표하며 “미세먼지 문제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정책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창문 열지 않기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건강에 대한 위험도 문제지만 야외활동이 줄어들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어요. M세대 달님은 “햇볕 좋은 날을 골라 이불 빨래하던 예전과 다르게 건조기를 사용해야 하는 날이 더 많아지고 야외로 자연을 즐기러 나가던 주말에는 실내 장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이

렇게 많은 것들이 제한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우울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대중교통 이용 및 친환경 차량 사용 증가(48.2%)’가 가장 많았고 ‘친환경 제품 사용 및 환경 보호 캠페인 참여(18.9%)’, ‘쓰레기 배출 줄이기(13.8%)’도 많은 선택을 받았어요. 모두 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들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실천 방법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MZ세대의 걱정과 고민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M세대 웅다님은 “미세먼지가 결혼과 출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평생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안쓰럽거든요”라고 이야기했고 Z세대 세인님은 “국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밝혔어요. 미세먼지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MZ세대는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한편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K**

2028년 세계 1위 K-컬처 업고 K-마이스 재도약

MICE는?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이벤트(Exhibition·Event)의 줄임말로 국가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부터 기업·협회·학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을 뜻한다. 국제회의가 열리면 행사장 주변에서 방문객들이 교통, 숙박, 외식, 관광 등 부가적인 활동에 참여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행사 물품 판매, 수송, 인쇄, 설치 등 관련 산업들에도 활력이 생긴다.



2023년 6월 21일 '제13회 부산커피쇼'가 열린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커피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3월 26일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에 서는 800여 명이 참석한 특별한 치맥 파티가 열렸다. 파티의 주인공들은 중국 포상관광단이었다. 중국 광저우의 건강·보건 제품 판매기업인 '광저우원연생물과기유한공사' 임직원들로 3월 25일부터 4박 5일 동안 경기도에 머무르며 한류 트렌드를 체험했다. 대규모 포상관광단이 경기도를 찾은 것은 2019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4월 13일 강원 춘천시 남이섬에서는 인도의 대표 봄맞이 축제인 '홀리 해이(HOLI HAI) 컬러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페스티벌은 나이, 인종,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돼 서로에게 색채 가루를 뿌리며 즐기는 축제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페스티벌을 주최한 강원관광재단과 춘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관광 성장동력을 만들고 강원 마이스(MICE)산업의 붐업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마이스 산업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성장이 주춤했던 마이스 산업은 2023년을 기점으로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식 체험 관광을 제공하는 온고프드커뮤니

케이션도 올해 들어 포상관광 의뢰가 부쩍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의뢰가 뜸 끊긴 뒤 2023년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 올해 들어서에는 눈에 띄게 미식 관광 신청이 늘고 있다. 최지아 온고푸드커뮤니케이션 대표는 “30~100명 단위의 포상관광단을 한 달에 3~4개 팀 받고 있다”면서 “포상관광의 경우 포상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데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서울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국적도 과거 동남아가 많았던 것과 비교해 유럽·북미 등 서구권으로 다양화됐다는 것이 최 대표의 말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들이 김밥을 직접 만들어본다든지 K-팝 댄스를 배우는 등 드라마 속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과거 관광지 중심의 포상관광이 체험 중심으로 바뀐 것도 달라진 풍경”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마이스 산업 1조 6000억 달러

마이스 관련 국제기구인 EIC(Event Industry Council)가 2023년 발간한 보고서 ‘비즈니스 이벤트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따르면 해마다 180개국 이상에서 16억 명 이상이 마이스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행사를 위한 여행·전시업체와 같은 연관업체 지출을 통해 1조 1500억 달러 이상의 직접 지출이 발생했다.

마이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스 행사로 인해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들이 김밥을 직접 만들어본다든지 K-팝 댄스를 배우는 등 드라마 속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과거 관광지 중심의 포상관광이 체험 중심으로 바뀐 것도 달라진 풍경이다.”

생기고 66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이 창출된다. 마이스 산업으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은 1조 6000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산업 중 13번째로 규모가 크다.

스위스 그라우빈덴주의 다보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다. 해마다 1~2월이면 이곳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기 때문이다. 인구 1만여 명의 작은 도시는 포럼 개최로 연간 5000만 유로(약 67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얻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찌감치 마이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육성해왔다. 1996년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000년대부터 국제회의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2023년 원자력산업 국제회의 등 굵직한 국제회

의를 개최하며 마이스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그 결과 2000년 세계 30위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세계 1~2위 규모로 성장했다.

국제협회연합(UIA)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2019년 1113건(2위) ▲2020년 256건(4위) ▲2021년 473건(2위) ▲2022년 326건(7위)을 기록했다. 여전히 UIA 집계에서 국제회의의 개최 순위 10위권에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K-마이스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때다.

K-마이스 키우는 3대 목표·3C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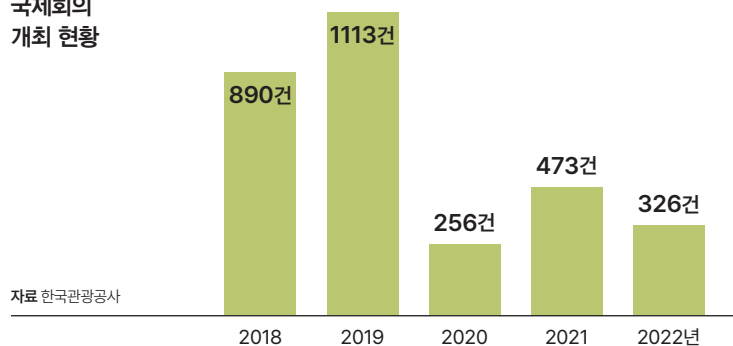
이에 정부는 K-마이스가 재도약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3월 25일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열었다.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선포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이스 산업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2028년까지 ▲국제회의의 건수 1위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 명 ▲외화 획득액 30억 달러 달성 등 3대 목표를 공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3C 전략’을 제시했다. 3C 전략은 ▲지역 및 민관과의 협력(Collaboration) ▲더 큰 마이스를 위한 융합(Convergence) ▲혁신 지속력을 위한 경쟁력(Competitiveness) 등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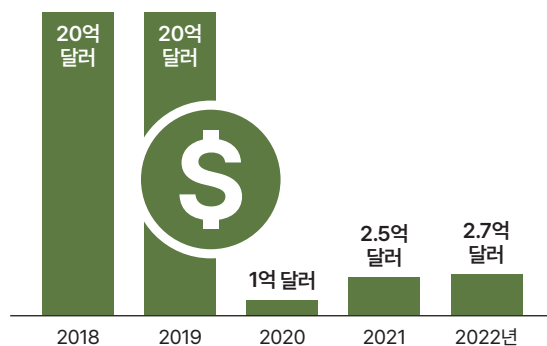
먼저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 마이스 전담 조직이 지역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 현황

국제회의 개최 건수



국제회의 산업 외화획득액



전략산업의 시그니처 국제회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최한 지 3년 이상 10년 미만인 국제회의 가운데 경쟁력 있는 회의를 선별해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과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와 연계해 홍보 지원을 한다. 10년 이상 된 국제회의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제회의는 다보스 포럼처럼 성장시켜 K-마이스의 발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역의 마이스 개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를 개편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호텔, 쇼핑몰 등 연관시설을 집적화한 곳을 말한다. 현재 7곳에서 2곳 더 추가해 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예비 국제회의 지구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유치부터 개최까지 인근 지역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2개 이상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연계하는 ‘마이스 원벨트’를 구축한다.

마이스 유치 및 개최를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망을 2배로 강화한다. 마이스 관련 해외사무소를 현재 9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국제회의 유치 사무소를 미국 로스앤젤레스, 호주 시드니,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까지 4곳을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 또한 기업회의와 포상관광을 위한 사무소도 중국 광저우, 싱가포르 등 6곳에서 5곳을 추가해 총 1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차별화된 K-마이스 콘텐츠 발굴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융합과 사업모델 다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국내 회의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의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발굴해 K-마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전시·공연·축제 등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행사 등과 융합해 K-마이스만의 차별화된 대형 국제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마이스 산업에 K-컬처 체험 관광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기업회의, 포상관광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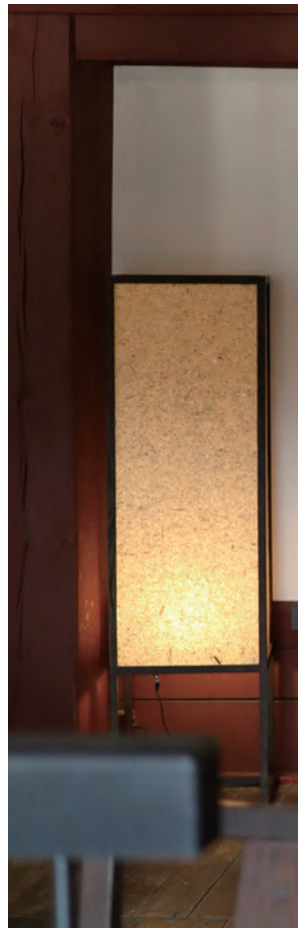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방문한 단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K-콘텐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전시·박람회 등을 위해 방문한 개별 참가자가 맞춤형 문화관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K-마이스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마이스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마이스 기업에 마이스 행사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위치기반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마이스 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인력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비 인력과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이스 산업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마이스 산업 종사자에게는 신입인력 교육 및 종사자 간 네트워크를 지원해 마이스 산업과 인력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향후 ‘2024년 제2차 한국 마이스 산업 발전협의회’를 열어 3C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K** 조이현 객원기자



양쪽으로 팔우정·협길당을 끼고 있는 집옥재 외관(왼쪽)과
중국풍의 화려한 건축양식이 돋보이는 내부 모습.



‘고종의 서재’로 봄나들이 가볼까

경복궁 ‘작은 도서관’ 집옥재 개방
조선왕실자료·소설 등 1700여 권 구비

“와 궁 안에 진짜 도서관이 있네!”

나들이 나온 상춘객들 사이로 감탄이 쏟아진다. 전각 내부에 뽀뽀이 꽂힌 1700여 권의 책도, 호롱불을 연상케 하는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책상도 누구나 책 한 권 빼들고 읽고 싶게 만든다. 눈에 꽃풍경을 담기 바쁘던 나들이객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책장을 넘기며 여유를 찾는다. 왕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잠시나마 역사 속 인물이 돼보는 상상도 즐겁다.

‘고종의 서재’ 경복궁 집옥재가 4월 3일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집옥은 ‘옥 같은 보배, 즉 책을 모은다’는 뜻이다. 고종(재위 1863~1907)은 1881년 개화정책 구상을 위해 4만 권이 넘는 책

을 모아 서재 겸 집무실인 집옥재를 지었고 외국 사신의 접견 장소로도 썼다. 창덕궁에 자리했던 건물이 옮겨진 것은 고종이 경복궁으로 환궁한(1884년) 이후다. 집옥재는 1961년 5·16쿠데타 이후 보안을 이유로 줄곧 닫혀 있었지만 문화재청이 2016년부터 조선시대 역사·문화 왕실자료 관련 도서를 비치해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역사공간을 눈으로 훑어보는 것을 넘어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다. 올해는 4월 3일부터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고 있다. 경복궁을 찾은 이들은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집옥재는 경복궁의 가장 안쪽 북서 방향에 자



4월 3일부터 일반에 공개된 경복궁 내 작은 도서관 '집옥재'에서 방문객들이 책을 읽고 있다.

리하고 있다. 광화문에서부터 천천히 걸어 20분 가량 걸린다. 한창 꽃축제가 벌어진 경복궁 안을 거닐다보면 힘든 줄 모르게 다다른다. 연못 주위로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향원지를 지나면 왼쪽 후원에 보이는 건물이 집옥재다. 구한말 유행한 중국풍 양식을 취한 것으로 궁내 다른 전각과 달리 최대한 호사를 부린 것이 특징이다.

벚꽃 풍경 바라보며 즐기는 '궁 독서'

도서관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입장 인원수에 맞춰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내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고종의 어진(왕의 초상)이 방문

객을 맞는다. 그 뒤로는 옥색 단청 아래 나무 책장을 가득 채운 서적이 한눈에 펼쳐진다.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장서각 장서를 비롯해 조선왕실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련 서적 1700여 권이 빼곡하다. 과연 왕의 서재다운 모습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예술·문학 등에 대한 책도 다양하게 비치돼 있어 잠시 책속으로 역사 여행을 떠나기에도 좋다. 평소 어렵게만 느껴지던 역사책도 이곳에선 술술 읽힐 듯하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소설이나 에세이, 과학서 등 일반도서도 구비돼 있다. 올해 정독도서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최근 출간된 책 150여 권을 대여·기증받았다.

한편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한국문학 번역본을 모아뒀다. 곳곳에서 윤태호 작가의 만화 ‘미생’이나 김영하 작가의 소설 ‘검은꽃’을 접어든 외국인도 만날 수 있다. 고종이 서구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 책들로 집옥재를 채웠다면 이제는 나라 밖으로 뻗어가는 한국문학이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손끝으로 종이책을 훑는 것만으로도 도시민에게는 위안이 되지만 잠시라도 꼭 앉아 쉬어가기를 추천한다. 나무 책상에 앉아 통창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을 맞고 있노라면 책장이 절로 넘어간다. 책상마다 은은한 빛을 내뿜는 조명장치가 마련돼 있어 오롯이 집중하기에도 좋다. 간간이 고개를 들면 전각 밖으로는 벚꽃이 훑날리는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지니 지루할 틈이 없다.

한편 집옥재는 양쪽에 팔우정과 협길당을 날개처럼 끼고 서 있다. 세 건물은 모두 복도로 연결돼 있는데 팔우정은 방문객도 직접 들어가볼 수 있다. 정자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도록 지었다는 팔우정은 그야말로 ‘힐링 스폿’이다. 팔각 돌기둥을 둘러싸고 놓인 테이블에 앉아 창으로 한가득 들어오는 봄기운을 받으면 금세 마음이 평온해진다. 팔우정엔 따로 책이 구비돼 있지 않지만 평소 즐겨 읽는 책을 가져와 나만의 도서관으로 삼아도 좋다.

집옥재와 팔우정 내부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만나볼 수 있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매주 화요일 및 7~8월, 추석 연휴 휴관). **K**

글·사진 조윤 기자

2024 봄 궁중문화축전

4월 27일~5월 5일 5대 고궁서… 궁궐 산책하고 왕이 사랑한 ‘가배’ 한 잔

‘2024 봄 궁중문화축전’이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선 다양한 체험과 상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복궁 전역에서는 전통복식을 입고 궁중음식·무예·회화 등 다양한 궁중 일상을 체험해보는 ‘시간여행, 세종’ 프로그램이 새로 선보이며 2023년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한 ‘고궁뮤지컬-세종, 1446’이 다시 찾아온다. 창덕궁에서 진행되는 ‘아침 궁을 깨우다’에서는 ‘궁궐 걷는 법’의 저자 이시우 작가와 함께 두 시간 동안 봄날 아침의 창덕궁을 거닐 수 있다. 덕수궁에서는 ‘황실취미회’가 열려 가배(커피)와 옥돌(당구), 음악 등 고종이 사랑한 취미생활도 체험해볼 수 있다. 이밖에 창경궁에서는 어린이날을 기해 ‘어린이 궁중문화 축전’을 개최하며 경희궁 곳곳에서는 경희궁의 역사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경희궁을 만나다’를 진행한다.

봄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사전예약 프로그램 예매 티켓과 5대 축전 기간 동안 5대 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궁패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3월 3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2024년 수문장 임명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엄마
오행복



아빠
한태평



첫째
한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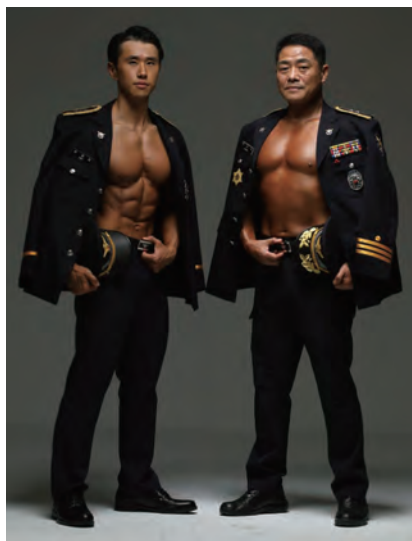
둘째
한소리



강아지
설기

저탄소 농업기술





‘몸짱 경찰 달력’ 최연장자 모델 박근직 경감

“몸을 만들면 마음도 자유로워진다 100세에도 보디빌딩 도전할 것”

2024년 우리나라 최고의 몸짱 경찰, 미스터 폴리스는 누구일까? 옷통을 벗어젖히고 탄탄한 근육질을 자랑하는 몸짱 경찰들을 매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몸짱 경찰 달력’이다. 그해 몸짱으로 선발된 경찰들이 열두 달 모델로 등장해 눈을 즐겁게 한다. 덕분에 몸짱 경찰 달력은 돈 주고도 사기 어렵다.

2024년 1월 달력을 장식한 모델은 경찰대학교 생활지도계 교수인 박근직 경감이다. 20~30대 청년과 맞붙어도 뒤지지 않을 몸을 자랑하는 박 경감은 1964년생으로 올해 60세다. 박 경감은 ‘2024년 몸짱 경찰 달력’ 프로젝트의 최연장자 모델로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몸짱 경찰 달력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019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박 경감은 2024년 달력을 위해 2023년 8월 열린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 50대 부문에서 입상했다. 이 대회에서 선발된 49명이 장식한 2024년 달력(1만 5000원)은 한 달

만에 완판돼 총 1648만 원의 수익금을 남겼다. 수익금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 생계지원 등에 쓰인다.

박 경감은 2023년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기 위해 5개월을 준비했다. 하루 3~5시간씩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했다. 근무하면서 대회를 준비하는 건 쉽지 않다. 교대근무가 많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어렵고 야식의 유혹도 크다. 그는 “사명감이 아니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좋은 일에 참여하면서 내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몸짱 경찰 달력’에 최연장자 모델로 참여했다.

원래부터 ‘몸짱’은 아니다.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근무 특성상 교대가 많아 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게 쉽지 않다. 스트레스를 음주와 흡연으로 풀었다. 50대 초반만 해도 몸무게가 70kg 중후반대였다. 10여 년 전 경찰



올해 6월 퇴직을 앞둔 박근직 경감은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몸짱 경찰
달력'에 최고령 모델로 참여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간부후보생들과 충북 음성의 꽃동네에 자원봉사를 갔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삶을 반성하게 됐다. ‘막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일단 술과 담배를 끊었다. 몸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느껴졌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10년 동안 보디빌딩 대회 출전만 14회를 했다고?

운동을 시작할 때 배 둘레가 41인치 정도 됐다. 복부비만이 심했다. 고혈압 같은 성인병 증상도 시작되고 있었다. 술·담배를 하는 시간에 운동을 하자는 생각으로 매일 하루 3시간씩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했다. 그런데 혼자서 운동을 하니 몸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디빌딩 대회로 동기 부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20년부터 ‘미스터 폴리스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기 위해 전문가에게 PT(1대1 맞춤 트레이닝)를 받기 시작했다. 체중도 76kg에서 66kg까지 빠졌다. 50대의 마지막인 2023년에는 어떤 대회든

꼭 우승을 하고 싶었다. 서울 지역 대회에서 다행히 50대 부문 출전자가 없어서 (웃음) 우승컵을 받았다.

‘몸짱 달력’ 모델을 뽑기 위해 2023년 제주에서 제1회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 대회’가 열렸다.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 대회는 그동안 경찰관들이 자체적으로 열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모여서 대회를 열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동영상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당시에는 문을 닫은 헬스장이 많았다. 혼자 대회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몸짱 경찰 달력 프로젝트 주최자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박성용 경위는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아니까 눈물이 나서 아무도 못 떨어뜨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년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한 제주경찰청이 공식적으로 대회를 열어준 것이다.

2024년 달력엔 최연장자 박 경감을 필두로

‘몸짱 경찰 달력’ 프로젝트는?

아동학대 피해자 돕기 위해 2019년 시작 수익금 전액 기부

‘몸짱 경찰 달력’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올해 6년째를 맞이했다. 2019년 ‘몸짱 경찰 달력’을 기획한 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박성용 경위다. 박 경위는 열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다. 성장기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박 경위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어 기부 달력을 생각했다. ‘몸짱 경찰 달력’ 모델로 참여하려면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는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 선발돼야 한다. 연령별·체급별로 그룹을 나눠 수상자를 뽑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몸짱 경찰 달력’ 판매로 기부한 금액은 모두 7250만 원. 2024년도 달력 역시 3월 31일까지 완판됐고 그 수익금 전액(1648만 1537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했다.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법 규정도 강화된다. 지난 1월 9일 정부는 아동학대



2023년 8월 19일 제주경찰청 대강당에서 (사)대한보디빌딩협회와 제주경찰청이 공동 주최한 제1회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 대회가 열렸다. 사진 박근직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때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40~50대 경찰관들이 동참했다. 서울 혜화경찰서 명륜파출소 소속 정우갑(50) 경위는 “결혼을 늦게 해 아이들이 여섯 살, 네 살, 세 살이다. 자녀를 낳으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 달려 제작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박건용(55) 경위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20kg을 감량했다. 박 경위는 “피의자 인권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피해자 인권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적다”며 “형사과에서 현장을 뛰다 보니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다.

경찰대학교에서 생활지도계 교수로 재직 중이다.

5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태권도, 합기도 등을 익혔다. 합기도 공인 6단이라 당시 사병들에게 특공무술을 지도하고 교관으로도 근무했다. 전역 후 경찰이 된 뒤로도 경찰서에서 호신체포술 등을 가르쳤다. 2008년에는 보디빌딩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도 땀다. 그런데 내 몸을 너무 자신했는지 운동을 하다 어깨 부상을 입었다. 이후 10년 동안은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운동을 하는 만큼 몸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6년 건양대 보건복지대학원에서 운동처방학을 전공했고 대한보디빌딩협회 코치아카데미에서 재활운동 강의를 들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운동하는 것만큼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경찰 후배들에게 자극이 될 것 같다.

경찰대 제자였던 이준혁 경위가 2021년 모델로 참여했다. 학생 시절 나에게 강의를 듣고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몸을 준비해 대회에 참여했다고 한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재능기부’로 PT를 해준다. 내 몸이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퇴근 후에 두 시간씩 강의도 한다. 힘들어도 보람을 느낀다.

누구나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나?

일단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몸을 준비시켜야 한다. 운동을 마친 후에도 정리운동을 하면서 몸에 쌓인 독소를 빼줘야 한다. 경찰대에서도 학생들이 운동하다 많이 다친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학생들에게 유연성 운동과 코어 운동을 시켰더니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몸이 준비된 후에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 속에서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점차 운동량을 늘리는 게 좋다.

퇴임을 세 달 앞두고 있다. 감회가 어떤지?

26세에 경찰을 시작했다. 3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흐른다. 내 체력을 자신해서 몸을 막 쓰던 시절도 있었고 부상을 입은 후 몸을 돌보지 않고 살던 시절도 있었다. 이 모든 게 내게는 공부였다. 금주와 금연 이후에는 몸이 젊은 시절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 운동으로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100세에도 대회에 나가는 게 목표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푸는 박 경감의 하루는 빠르게 흘러간다. 매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거르지 않고 밀가루나 설탕, 튀김 요리는 입에 대지 않는다. 그런 음식들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녹슬게 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몸은 정직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졌다. 퇴직 후에는 자신과 또래인 시니어들을 위한 ‘헬스 트레이너’가 되려고 한다.

“60대에도 이렇게 몸이 가벼운데 100세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몸이 가벼워지면 자유가 찾아온다. 박근직 경감은 퇴직 후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작정이다. **K**

유슬기 기자

최근 한국인들이 돌을 반려동물처럼 돌본다는 뉴스를 봤다. 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나 제라늄·선인장 같은 반려식물을 키우는 데 부담을 느낀 사람들에게 무생물인 반려돌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불명(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멍하게 보는 것)’, ‘물명(물이 흐르는 모습을 멍하게 보는 것)’에 이어 조만간 ‘돌명(돌을 멍하게 보는 것)’까지 대세가 될 전망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불이나 물을 보면서 멍 때리고 앉아 있고 싶은 욕구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돌은 불이나 물과 달리 촉감이 추가된다. 작지만 손에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주머니 속의 돌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 그까짓 돌이 뭐라고 위안이 될 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사람들이 돌을 사랑한 역사는 의외로 오래됐다.



불명? 물명? ‘돌명’ 하는 선비들

경화세족들의 정원에 빠질 수 없는 것

이인문의 ‘연정수업’은 연꽃이 있는 정원을 그린 작품이다. 화첩인 탓에 그림 가운데 세로로 접힌 부분이 보인다. 정원 중앙에는 연꽃이 핀 연못이 있고 연못 안에 누각을 세웠는데 누각 안에서 스승과 제자가 앉아 한참 수업 중이다. 누각 뒤의 오른쪽 그늘에서는 시동이 차를 끌고 연신 부채질이다. 찻물 보글거리는 소리가 그

림 너머 우리 귀에까지 들린다. 연못은 제법 규모가 큰지 작은 못단배도 보이고 한 시동은 앉아서 낚싯대를 드리웠다.

이 그림은 실제 풍경을 그린 산수화가 아니다. 담장 중앙의 대문과 오른쪽 하단의 소나무 아래에 사슴이 있다. 사슴은 장수와 영생을 상징해 십

장생(十長生)에 포함되는 동물이다. 연꽃은 부처를 상징하는 청정한 꽃임과 동시에 군자의 꽃으로도 사랑받았다. 사슴, 연꽃 등은 이곳이 실제 풍경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간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연정수업’은 실제로 누릴 수는 없지만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속의 이상향



이인문, '연정수업', 종이에 연한 색, 38.2×59.1cm, 국립중앙박물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조금만 빼앗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 몰수하는 사람들에 시달리다 항상 그 자리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돌을 보면 뭉클해지는 법이다.”

을 그린 작품이다.

그렇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
든지 실현 가능한 정원이다. 18세기
이후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한 경화
세족들은 정원에 연못을 만들고 뱃놀
이를 하며 차를 마시는 것을 즐겼다.
양반문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괴석(怪石)이다. 괴석은 말 그대로 괴

상하게 생긴 돌을 뜻한다. ‘연정수업’
에도 정자 양쪽에 괴석이 서 있는데
연못 속에 설치해 마치 물속에서 자란
것처럼 보인다. 괴석은 대자연의 축소
판으로 정원을 꾸미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괴석을 좋아
하게 됐을까? 괴석은 태고의 역사성

과 불변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랫동안
자연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면서 의
연하게 본래의 모습을 지킨다. 그래
서 돌은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에 포
함됐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조금만
빼앗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 몰수
하는 사람들에 시달리다 항상 그 자리
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돌
을 보면 뭉클해지는 법이다.

창덕궁 낙선재 뒤뜰에 ‘괴석’이 있는 이유

그중에서도 ‘연정수업’에 등장하는 태
호석(太湖石·석회암이 녹아 기형적
형태가 된 돌덩이)은 조경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손에 넣고 싶
어 하는 ‘워너비(wannabe·가지고 싶
은 물건)’였다. 태호석을 중국에서 수
입해 정원에 장식해놓고 친구들을 불
러 함께 감상하면서 시를 짓거나 괴
석도를 그리는 취미가 일세를 풍미했
다. 창덕궁 낙선재 뒤뜰에 장식된 괴
석 역시 왕실과 귀족들 가문에서 괴석
을 즐겼던 풍조를 반영한다.

요즘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 넣고 다
니는 작은 돌은 조선 후기 경화세족
들의 정원에 장식한 괴석하고는 그 의
미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돌을 감상
하거나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
다. 변치 않는 항상심일 것이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단단한 돌맹이처
럼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내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

조정욱 미술평론가

경기 양평 용문사 & 은행나무

키, 아파트 17층 몸무게, 중형승용차 69대 1018세 은행나무 신체검사 했더니...



용문사

주소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문의 (031)773-3797

노거수(老巨樹)는 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를 말한다. 전국에서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 중에는 은행나무가 가장 많다. 은행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 생명력이 강하다. 공룡이 출현하기 훨씬 전인 2억 7000만~2억 80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 남아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불에 잘 타지 않고 가지와 뿌리를 제거하고 줄기만 남은 상태에서도 몇 년간 잎이 돋는다고 한다. 현재 전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서울 문묘 은행나무,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등 모두 25그루다. 이중 7그루는 수령 10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고령은 경기 양평군에 있는 용문사 은행나무(이하 용문사 은행나무)로 수령이 1100년으로 알려졌다. 길어 봐야 100년 남짓 사는 사람에게 1000년 넘는 세월을 보낸 은행나무는 위대하고 신비롭기만 하다. 크기 면에서도 압도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0월 용문사와 용문사 은행나무를 지역문화와 가치를 알리는 '대한민국 로컬 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했다. 용문사 역시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이다. 용문사 은행나무를 둘러싼 이야기도 넘친다. 또다시 봄을 맞이한 은행나무를 만나러 용문사로 향했다. 용문사 은행나무에는 올해도 연둣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용문사는 용문산(해발 1157m)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용문산은 양평을 대표하는 산이자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다. 관광단지를 품에 안고 있는 용문산은 웅장한 산세와 기암괴석이 만들어낸 절경으로 유명하다. 가을엔 오색 빛으로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1971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용문산관광단지는 넓은 잔디광장과 캠핑장, 분수대,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으로 붐빈다.

오랜 역사, 전설 가득한 천년목

용문사는 관광단지를 지나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일주문을 지나니 1.3km의 오르막길이 굽이굽이 이어진다. 차량 통행을 막은 보행자 전용 산책로는 계곡과 도랑이 길을 따라 이어진다. 특히 길가에 따로 낸 도랑의 맑고 경쾌한 물줄기를 따라 걷노라면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슬슬 숨이 차오를 때쯤이면 멀리 용문사 은행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멀리서 봐도 엄청난 크기다. 가까이서 보면 더욱 놀랍다. 은행나무 둘레는 성인 6~7명이 팔을 쭉 뻗어도 다 안을 수 있을까 싶다. 고개를 완전히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다. 여전히 강인한 생명력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듯했다.

수령 1018년에 아파트
17층 높이를 자랑하는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사진 양평군



1 용문산 기슭에 자리잡은 천년고찰 용문사는 소박하지만 예스러운 품위가 느껴진다. 사진 조이현 객원기자 2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용문산관광단지. 사진 양평군 3 지금은 폐역이 된 추억의 간이역 구둔역. 사진 C영상미디어

“은행나무 둘레는 성인 6~7명이 팔을 쭉 뻗어도 다 안을 수 있을까 싶다. 고개를 완전히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다. 여전히 강인한 생명력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듯했다.”

천년 넘는 세월을 견뎌온 나무인 만큼 수많은 전설과 사연을 안고 있다. 먼저 이 나무는 신라의 마지막 세자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 심었다고 전해진다.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으니 은행나무로 자랐다는 말도 있다. 나무를 자르려고 톱을 댔을 때 톱 자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쳐 중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나라에 큰 이변이 생길 때마다 큰 소리를 냈다는 전설도 내려온다. 고종 황제가 승하했을 때는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졌다고 한다. 8·15 해방과 6·25전쟁 때에는 인근 주민들이 “잉”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정미의병 항쟁 때는 일본군이 용문사에 불을 질렀는데 절집과 숲이 불에 탔지만 이 은행나무만 타지 않았다고 한

다. 사람들이 나무에 ‘천왕목(天王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도 그 때문이다. 조선 세종 때에는 정3품보다 높은 벼슬인 당상직첩(堂上職牒)을 하사받았다. 이래저래 범상치 않은 나무여서일까? 용문사 은행나무 앞에는 사람들의 소원지가 빼곡하다. 노란 은행나무 잎 모양의 종이에 건강, 취업, 사랑 등 저마다의 소원이 적혀 있다.

고즈넉한 천년고찰에서 힐링타임

그동안 용문사 은행나무의 수령이 1100년가량으로 추정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령이라고 알려졌지만 정보가 제각각인 데다 정확하지도 않았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높이, 둘레, 부피, 무게, 탄소저장량 등 나무의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최신 라이더(LiDAR) 기술을 이용, 용문사 은행나무의 실물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 나무를 구현해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산림과학원은 3월 4일 검사 결과 용문사 은행나무의 나이가 1018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첨단기술로도 1000년 넘는 나무임이 확실해진 것이다.

자세한 신체검사 정보에 따르면 용문사 은행나무의 높이는 38.8m로 아파트 17층 높이에 달한다. 둘레는 11m, 최

대 가지 폭 26.4m, 전체 나무 부피는 97.9m³다. 이중 줄기는 44.6m³, 가지 23.2m³, 잎 2.9m³, 뿌리 27.2m³다. 전체 나무 무게는 97.9톤으로 중형승용차 약 69대와 맞먹는다. 또 산림과학원이 측정된 나무 정보를 바탕으로 탄소저장량을 계산한 결과 총 탄소저장량은 31.4톤이었고 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은 113kg으로 50년생 신갈나무 11그루가 연간 흡수할 수 있는 양과 같다.

용문사 은행나무를 충분히 봤다면 이제 용문사를 둘러볼 차례다. 용문사는 신라시대(913년)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전후해 두 번이나 찾은 사찰로도 유명하다. 대웅전 앞에 서서 보면 거대한 은행나무가 마치 사찰을 지키고 서 있는 수호신 같다. 천년고찰치고는 규모가 소박하고 건물도 오래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의병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불에 탔고 그나마 소박하게라도

복원된 것을 6·25전쟁이 거듭 잣더미로 만들었다. 대부분 1970~90년대에 지은 건물들이지만 차분하고 예스러운 품위가 느껴진다.

관음전 옆으로 난 숲 산책로는 보물 제531호 용문사 정지국사탑으로 향하는 길이다. 보물도 보물이지만 탑까지 향하는 산길이 잘 정비돼 있어 산림욕을 하며 상쾌한 기분으로 걷기에도 좋다. 정지국사탑은 고려 후기부터 활동하다 조선 태조 4년에 입적한 정지국사의 유골을 봉안한 승탑이다. 연꽃을 새긴 팔각탑에서 80m 떨어진 자리에 스님의 업적을 기록한 정지국사비가 있다.

용문사는 템플스테이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산림이 울창하고 수량이 풍부한 계곡이 곁에 있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 중에서도 인기가 높다. 일상에서 벗어나 산사에서 여유롭게 힐링타임을 즐길 수 있다. **K** 조이현 객원기자

양평에서 즐기는 레트로 여행

추억의 청춘뮤지엄·구둔역 폐역도 가볼까?

용문산 관광단지 입구에 있는 '추억의 청춘뮤지엄'은 1970년대 풍경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당신의 감성을 깨워줄 복고 체험 미술관'을 콘셉트로 내세우고 있다. 힘들었지만 따뜻했던 1970년대 그때 그 시절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다양한 복고 체험도 가능하다. 전자오락실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 어릴 적 친구와 하던 추억의 놀이인 말뚝박기, 달고나, 딱지왕, 땅따먹기, 제기차기, 고무줄놀이 등을 즐기며 추억을 소환할 수 있다.

지금은 자취를 감춘 양장점, 사진관, 대포집 등 아련한 추억이 전해질 골목길도 있다. DJ 부스가 있던 다방, 공중전화, 추억의 극장 등에서 1970년대 데이트 코스를 엿볼 수 있다. 트위스트와 디스코 등 1970년대를 풍미했던 댄스음악이 흐르는 고고장과 당구장에서 그 시절 청춘들의 뜨거운 열기도 느껴보자.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기차길과 정든 고향역도 재현했다. 포토존도 아주 많다. 그 시절 교복을 입고 추억의 사진을 남겨보자.

레트로 여행을 즐기기에 '구둔역 폐역'도 좋다. 영화 '건축학개론'과 방탄소년단의 '봄날' 뮤직비디오, 아이유의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표지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구둔역은 1940년 중앙선에 설치한 역이다. 중앙선은 서울 청량리~원주~안동~경주를 잇는 철도로 일제강점기 물자 공급과 운반을 위해 일본이 설치했다. 철도 노선 변경으로 2012년 폐역이 됐다.

기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철로 위를 마음껏 걸어도 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간이역과 철로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기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다. 선로 한쪽엔 오래된 전동차 2량이 설치작품처럼 서 있다. 레트로한 감성을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소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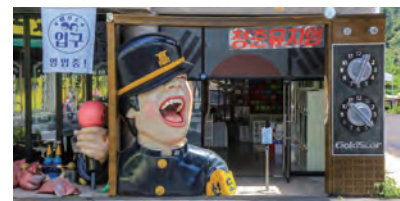


사진 양평군

추억의 청춘뮤지엄

주소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620

문의 (031)775-8907

운영시간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입장료 성인 8000원, 소인 6000원



사진 양평군

구둔역 폐역

주소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336-9

문의 (031)771-2101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들꽃처럼 제 인생의 봄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요”

Q

선생님, 봄이 오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즐거운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그늘진 들판에 피어 있는 들꽃들을 보면 그래요. 선생님은 혹시 봄까치꽃을 아세요? 봄이 되면 벚꽃보다 먼저 피는 꽃인데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꽃이에요. 사람들은 개나리나 진달래, 벚꽃만 기억할 뿐 봄까치꽃처럼 이름도 생소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들꽃은 피어 있는지조차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얼어붙은 겨울 땅

을 뚫고 힘들게 세상의 빛을 본 예쁜 꽃들이 한 번 볼려보지도 못하고 외롭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실은 그 이름 모를 꽃들이 꼭 제 모습 같거든요. 지금은 삶이 한겨울처럼 차고 시리지만 인내하며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따사로운 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봄이 왔는데도 제가 맺은 결실이 아름다운 벚꽃이 아닌 아무도 봐주지 않는 들꽃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선생님은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실 수 있나요?

(박지연·가명, 30세)

독자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giyultv@gmail.com으로
보내면 됩니다.
채택된 사연은
'신기울의 마음 상담소'
지면을 통해
상담해드립니다.

A

봄이 오면 산과 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들꽃이지만 저 또한 그 꽃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봄까치꽃'이라는 이름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지연 님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쳐온 수많은 들꽃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 번도 그 꽃들을 아름답지 않다거나 볼품없다고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때에 맞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연 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의 어원을 쫓아가보면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을 두 팔을 둥글게 모아 만든 둘레, 한 아름다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름다움은 한 아름 가득히 가져가고 싶을 만큼 보기에 좋고 예쁘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고유한 가치와 기준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매 순간 마음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름’의 어원을 ‘나’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름다움은 가장 주관적이고 개성 넘치는 ‘나’다운 모습을 뜻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에는 외적인 화려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가치와 의미가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고 아름다운 꽃은?

지연 님의 두려움은 벚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의 삶을 버텨내고 있는 지연 님의 노력과 인내가 결국 수포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의 이면에는 그동안 겪어야 했던 실패의 기억이나 실패하면 또다시 재기하기 힘든 현실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할 게 많고 돌볼 사람이 많을수록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나 현재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연 님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걱정과 달리 화려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반대로 외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고유한 가치와 기준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매 순간 마음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찾게 되며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롯이 내면에 집중하게 될 때 외적인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오염되고 더럽혀질 수 있는 일시적인 상태일 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 붉게 피지는 못하지요. 대신 나다움의 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피어 있기에 상대가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있는 꽃이 되어 영원히 내 마음속을 꽃향기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나다움의 향기라면 충분히 아름답다

내면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와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때 불안은 벌어지고 자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 역시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온 자신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연 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인내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피워내는 꽃은 틀림없이 나다움의 향기를 지닌 아름다운 꽃일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괜찮아. 이 정도도 충분히’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이 바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찾아보니 봄까치꽃의 꽃말이 ‘기쁜 소식’이네요. 지연 님의 간절한 마음이 피워낸 모든 꽃이 따뜻한 인생의 봄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K



신기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인드풀링(Mindfulness) 대표이자 '신기울의 마음찾집'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부모가정 모임인 '그루밍' 교육센터장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욘 포세 한국 독자와 만난다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욘 포세가 한국 독자와 온라인으로 만난다. 대산문화재단, 교보문고, 주한노르웨이대사관은 4월 23일 오후 7시 30분 낭독회 '2024 낭독공감-욘 포세를 읽다'를 연다.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욘 포세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한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름 없는 존재들, 생과 사의 간극에서 잊히고 스러져간 이들의 희미한 궤적을 되살리는 데에 매진해왔다"고 밝혔다. 욘 포세는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극작가이자 소설가로 1983년 장편소설 '레드, 블랙'으로 데뷔한 이후 '이름', '누군가 올 거야', '밤은 노래한다' 등의 희곡과 '아침 그리고 저녁', '멜랑콜리아 I·II' 등의 소설을 썼다.



사진 노르웨이대사관



뮤지컬 미스트

뮤지컬 '미스트'는 2017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됐던 '조선귀족'으로 시작한 작품이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일급 조선 귀족의 자제들이 동경 유학에서 돌아와 경성의 '마루비루'에서 아키라와 이선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번 시즌에는 김려원과 이정화 등 대학교에서 활약 중인 배우들이 대거 합류했다.

기간 6월 2일까지

장소 링크아트센터 페이코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배우 신구와 박근형이 열연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추가 공연을 시작한다. 2023년 12월 개막해 50회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9개 도시 순회공연도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두 방랑자가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 연극은 1953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했고 국내에서는 극단 산울림이 1969년부터 50년간 1500회 공연한 바 있다. 신구와 박근형은 역대 최고령의 '고도'와 '디디'로 기록됐다.

기간 4월 26일~5월 5일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전시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산리오 캐릭터즈와의 여행' 전시가 열린다. 헬로키티와 마이멜로디 등 1970년대 탄생한 캐릭터뿐만 아니라 쿠로미, 시나모롤, 품퐁푸린, 포차코, 한교동 등 일본 엔터테인먼트 기업 산리오의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다. 헬로키티는 1974년 작은 동전 지갑으로 탄생해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산리오의 대표 캐릭터다.

기간 8월 13일까지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뮤지엄

인터뷰 | V-리그 최우수선수(MVP) 김연경

“팬들이 원한다!
현역으로
한 해 더 뛸 것”



4월 8일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정규리그 MVP와 베스트7을 수상한 흥국생명 김연경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김연경은 한국 여자배구의 살아 있는 역사다. 2005~2006 시즌 현역 데뷔부터 신인상과 최우수선수상을 함께 받았던 그는 2023~2024 V-리그 시상식에서 또 한 번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김연경은 4월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시상식'에서 정규리그 여자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김연경 개인으로는 6번째 수상으로 역대 최다 수상이다. 또 비우승팀에서 MVP를 배출하는 새로운 기록도 세웠다. 김연경이 소속된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김연경은 공수 양면에서 좋은 기록을 냈다. 이번 시상식에서 31표 중 20표를 획득한 김연경은 득점 6위(국내 선수 중 1위), 공격성공률 2위(44.98%), 리시브 5위(효율 42.46%), 수비 8위(세트당 5.557개)에 올랐다. 그는 시상식에서 “흥국생명이 우승할 수 있도록 한 해 더 뛰어보겠다”고 말했다.

국내 복귀 후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MVP를 수상했다.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VP 후보에 올랐지만 올 시즌 팀이 정규리그 2위를 해서 진짜 상을 받을 줄 몰랐다.

국가대표 은퇴 후 한국 여자배구의 성적이 이전 같지 않다. 한국 배구의 과제는 뭘까?

모든 배구인이 하나가 돼 한국 배구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준 높은 리그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배구대표팀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다. V-리그에서 보여준 열정을 대표팀에서도 보여줘야 한다. 대표팀이 잘해야 V-리그도 더 발전한다.

2024년의 계획은?

많이 고민했고 흥국생명 구단과 대화를 나눴다. 내년 시즌 팬들을 위해 한 번 더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고 있고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개인 성적이 더 좋다. 주변에서 조금 더 뛰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다. 가장 큰 이유는 팬들의 응원이다. 아직 내가 배구 선수로 뛰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 다음 시즌이 더 부담스럽겠지만 이겨내고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유슬기 기자



저자 김멜라 외(문학동네)

도서 2024 제1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2010년 제정된 젊은작가상이 15회를 맞았다. 데뷔 10년 이하 작가들의 발돋움을 조명하고자 마련된 젊은작가상은 2023년까지 모두 62명에 이르는 신인 작가를 소개했다. 특히 2021년부터 매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김멜라 작가는 올해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았다.



저자 홍여림(수작결다)

도서 맨날 사먹을 순 없잖아

아이를 품에서 떠나보낸 엄마에게 집 떠난 아이의 '한 끼'는 매일의 걱정이다. 이 책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 학업을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른 딸아이가 허기에 지쳐 쓰레기 같은 음식을 입에 옥여넣지 않기를, 스스로를 위해 제대로 된 한 끼를 준비해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K]

유슬기 기자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산책길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꽃구경을 하고 바람을 쐬니 기분이 산뜻하고 좋았어요. 취업준비생 조카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나중에 시간 내서 밥도 사주고 같이 이 길을 걸어봐야겠어요. 전국의 취준생 여러분, 이 사진 보고 힘내세요. 아자!

전원주 경북 경주시

공감 칭찬합니다!



749호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이나 무의탁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아온 허보록 신부님의 삶이 잔잔한 울림을 줬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 치유받는다”는 신부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구요. 허 신부님을 통해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웃들을 국민이 추천하고 정부가 심사해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기에 아직 세상이 살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학 경북 구미시



748호 ‘김형자의 친절한 과학정책’에서 종이컵은 편리하지만 그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줬네요. 종이컵의 코팅제로 쓰이는 과불화합물이 사람의 뇌 신경세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더 열심히 써야겠어요. 사람의 건강은 물론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종이컵 사용을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부터! 실천해보도록 해요!

김주영 전북 정읍시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youtube.com/weeklygonggam

blog.naver.com/mcst_pr

facebook.com/wegonggam

v.daum.net/channel/3094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와 ‘공감 칭찬합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24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05년생 청년! 공연·전시 보러 갈래?

2024.03.28.(목) ~ 2024.11.30.(토)

청년문화예술패스
QR코드



지원대상

전국의 19세 청년 총 16만명

* 2005년(2005.1.1.~2005.12.31.) 출생자

* 대한민국 국민 청년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 03.28.(목) ~ 2024.11.30.(토)

* 신청순으로 발급(지역별 예산 소진 시에는 해당 지역 발급 마감)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 2024.12.31.(화)

*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연 10만원~15만원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 10만원(국비) 즉시 지급, 5만원(지방비) 지자체별 지방비

마련 시점에 수시 지급

신청방법

청년문화예술패스 협력예매처 중 택 1

* 온라인 신청: 인터파크 or YES24

문의전화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 1577-196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44회 장애인의 날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The Path Together,
Leading to Equality

The 44th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4. 4. 18. 목 — 11:00 —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